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349-10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도 채 부연구위원
심 재 현 연 구 위 원
유 은 영 연 구 원

요 약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를 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에 대한 연구 추진 기반을 정비했고, 2013년에는 관련 연구 활동의 정착 및 확대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2014년에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15~’19)’ 수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2015년에는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농어촌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현황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① 농어촌 현황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③ 이슈리포트, ④ 삶의 질 향상 정책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연구 등 4개의 세부과제로 기획했다. 본 보고서는 농어촌의 현황과 변화 실태, 주민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이 보고서의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2012년에 개발하여 매년 추진해 온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개선하여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도출했다. 지수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 27개 지표로 구성했다.

이 지수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시·군 단위와 삶의 질 향상계획의 7대 정책 부문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도농복합시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시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시도 함께 분석했다.

둘째, 도시민·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층화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주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밖에 2015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인구, 토지이용, 경제활동(산업) 특성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을 도시지역,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간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의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유형별로 삶의 질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부록으로 수록했다.

주요 연구 결과

■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도출하여 시·군 단위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 단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삶의 질 정책 영역별로 도시(일반시, 도농복합시)지역과 농어촌(군)지역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인 삶의 질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보건·복지, 생활환경 등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의 발굴과 추진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민 조사에서 정책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보건·복지·생활환경 영역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 주민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 수급과 관련한 도·농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

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삶의 질 정책 영역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살펴보면, 동일한 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성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정책 영역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낙후되고 저성장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현실 반영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질 및 지역 발전 지수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 비교를 통해 정책 과제 도출 및 추진상황 점검의 목적에서 도출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구역 형태에 기초한 현재의 지역 구분 방식은 농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구분의 기초에서 삶의 질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수의 산출과 지역 분류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도시지역 주민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농촌주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지시키고, 마을 발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들에 비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의 발전 가능성보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주민들은 시·군의 발전이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주민들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농업과 농촌 발전의 방향을 인지시키고,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농촌지역 주민들은 보건·복지 부문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 결과, 보건·복지 부문의 모든 세부항목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응급상황 의료서비스에서 도시주민에 비해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농촌주민들이 생활을 영유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농촌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농촌주민들은 보건·복지 부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문화·여가 부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의 만족도 평균을 분석해본 결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항목 중 소득기회의 획득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컸다. 즉, 농촌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창출 기회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농촌의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부분이 됨에 따라,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 결과, 농촌지역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고, 도시와 농촌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이 문화·여가 부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증가와 함께, 전일제 여가시간을 보내야하는 고령자가 증

가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여가활동이 주민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회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1
- 2. 연구 내용과 방법 4

제2장 2015 삶의 질 지수 및 지역발전지수

- 1.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개발의 목적과 절차 6
- 2. 2015년 삶의 질 지수 개요 9
- 3. 2015 삶의 질 지수 산출 15
- 4.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농어촌 실태 분석 36
- 5. 소결 및 시사점 42

제3장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비교

- 1. 조사의 목적 44
- 2. 조사 대상 45
- 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46
- 4. 주요 분석 결과 50
- 5. 소결 및 시사점 70

부록 1: 5가지 지역구분을 통한 농촌주민 만족도 조사 74

부록 2: 지역 구분 및 시·군명 92

부록 3: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93

부록 4: 2014년 및 2015년 만족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비교 101

참고 문헌 103

표 차례

제2장

표 2- 1. 부문별 지표와 세부 내용 및 갱신 여부	12
표 2- 2. 삶의 질 지수 부문별 가중치	14
표 2- 3. 보건·복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17
표 2- 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19
표 2- 5. 정주생활기반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2
표 2- 6. 안전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4
표 2- 7. 교육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6
표 2- 8. 문화·여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8
표 2- 9. 환경·경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31
표 2-10. 부문 지수 간 상관관계	34
표 2-11.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변화	40

제3장

표 3- 1. 도시·농촌 구분방법 - 도시(동)/ 농촌(읍·면)	45
표 3- 2. 조사 방법 및 개요	46
표 3- 3. 농촌·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48
표 3- 4. 도·농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응답자 특성	49
표 3- 5. 만족도 비율의 시계열 분포	52
표 3- 6.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53
표 3- 7.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54
표 3- 8.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	56
표 3- 9. 도·농간의 7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차이	62
표 3-10. 2012년~2015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66

표 3-11. 이주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68
표 3-12.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69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연구 흐름도	5
-----------------------	---

제2장

그림 2- 1. 지수 개발 및 분석 과정	8
그림 2- 2.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개념 영역(2012~2014년)	10
그림 2- 3. 보건·복지 부문 4분위 지도	18
그림 2- 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4분위 지도	20
그림 2- 5. 정주생활기반 부문 4분위 지도	23
그림 2- 6. 안전 부문 4분위 지도	25
그림 2- 7. 교육 부문 4분위 지도	27
그림 2- 8. 문화·여가 부문 4분위 지도	30
그림 2- 9. 환경·경관 부문 4분위 지도	32
그림 2-10.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산출 과정	33
그림 2-11.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분포	37
그림 2-12. 연도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39
그림 2-13. 2013~2015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부문별 지수 변화	41

제3장

그림 3- 1.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50
그림 3- 2.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58
그림 3- 3.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59
그림 3- 4.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60

그림 3- 5.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61
그림 3- 6.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61
그림 3- 7. 2015년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65
그림 3- 8. 이주 의향 조사 결과	68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삶의 질 향상위원회는 2015년부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 5년)’에 따라 15개 부처, 3개 청의 중앙행정 기관 및 14개 시·도가 주체가 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84개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다.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 부문을 새롭게 포함하여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총 7개 부문으로 세부 정책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제2차 계획의 7개 정책 부문 중 하나였던 지역역량 부문은 제3차 계획에서 추진체계 상의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또한 제3차 계획에서는 하드웨어 중심 및 실적 위주로 추진되었던 기존 정책 추진 방식에서 발전하여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향상특별법」)¹ 제46조에 의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 「삶의 질향상특별법」 제44조 제5항에 의해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수준 점검·분석,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농어촌영향평가 전문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추진 상황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012년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정책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관련 연구 활동의 정착 및 확대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 수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농어촌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이와 더불어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그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추진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촌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본 연구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현황 및 변화 실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하여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도출을 통해 통계자료를 통한 농어촌 현황과 그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2004년 법률 제정 당시 법률 명칭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다만, 법률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범위나 정책의 내용적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삶의 질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농어촌 주민이 생각하는 부문별 삶의 질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추가된 안전 부문에 대한 조사 등 제3차 계획의 내용과 연계하여 각 부문별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실태와 개선 정도를 조사하였다.
- 도시와 농어촌 주민 간 삶의 질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 과거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행정구역에 기초한 도·농 지역구분법을 적용하여 지역 간 조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성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 구분을 통해 농촌과 도시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 토지 이용, 인구 분포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중간지역·도시지역을 구분하였으며 지역의 유형별 삶의 질 실태 비교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통계자료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 여건 실태 파악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기초가 되는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바탕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수립된 통계자료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분야별로 현황, 변화,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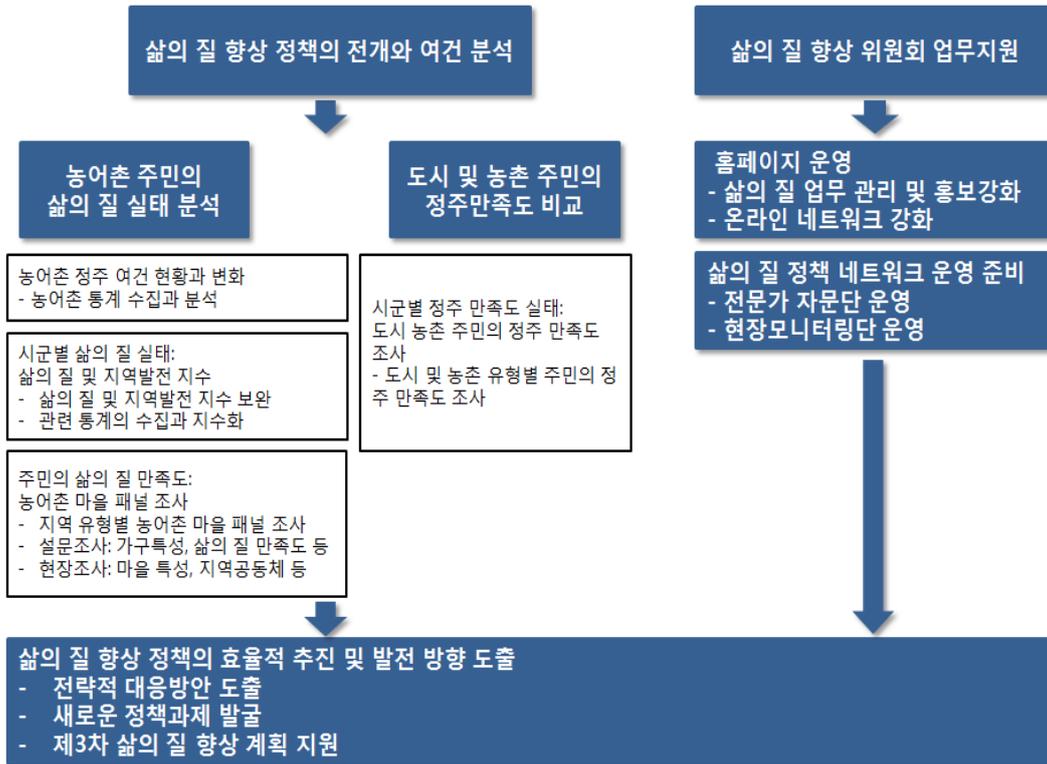
□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 2012년에 개발한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더욱 발전시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시·군지역 단위로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계획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통해 정책 부문 단위로 비교 분석하였다.
 - 도농복합시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시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 시도 함께 분석했다.

□ 도시민·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

-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에 대하여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층화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 * 2014년부터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비교 분석을 위한 조사의 틀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함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2015 삶의 질 지수 및 지역발전지수

1.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개발의 목적과 절차

- 2012년부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하여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가 개발되어, 매년 정책 영역별로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별 실태를 조사해오고 있다.
 -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지표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수립과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도별·지역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연도별 지표의 비교를 위해서 지수 산출 방식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 체계의 보완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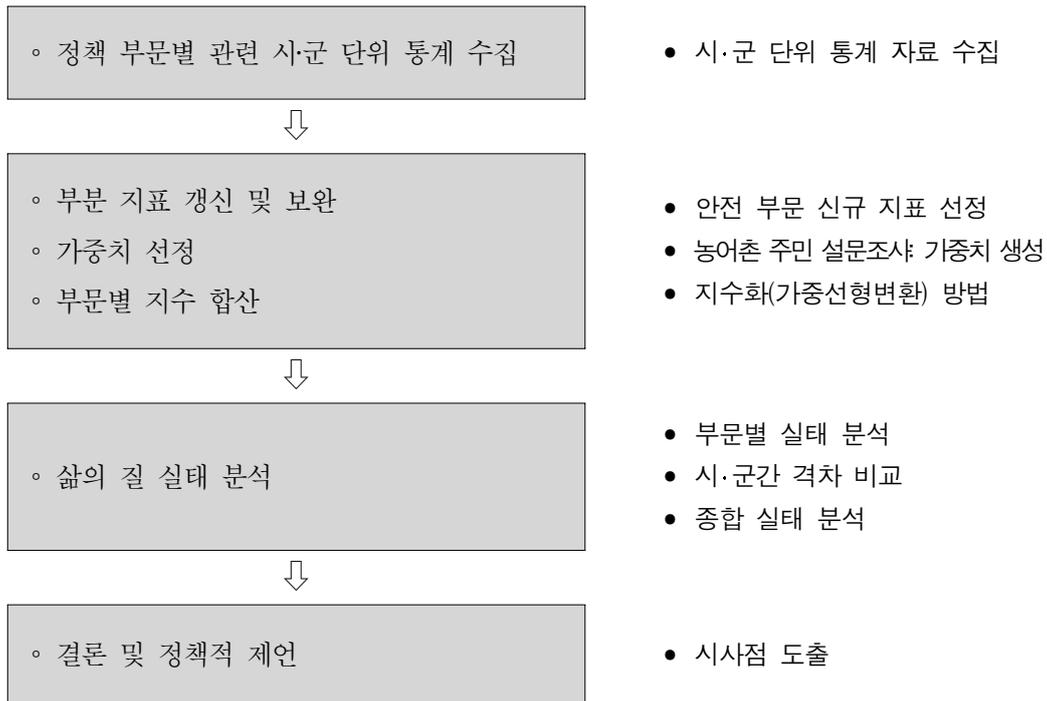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 농어촌지역 실태를 파악한다.
 - 정책 부문별로 도시·농촌의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로 구분되는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한다.
 - 조사 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에 따른 농어촌 현장의 삶의 질 여건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정책 여건의 변화와 농어촌지역의 실제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자 지수의 보완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금년 연구에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한 지수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
 - 2012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는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한 시·군 단위의 농어촌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최초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가 도출되었다.
 - 201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세부 정책 영역별 중요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삶의 질 현황 특성을 분석하였다.
 - 2015년 삶의 질 지수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촌 지역 구분과 지역 간 삶의 질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 삶의 질 지수 도출을 위한 주요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삶의 질 지수의 부문별 지표들에 대한 통계자료의 갱신을 수행하였다.

-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에 새롭게 반영된 안전 부문의 지표를 선정하고, 관련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지표를 도출하였다.
- 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표의 가중치를 구하였다.
- 시·군별, 세부지표별 표준화와 가중치 적용을 통해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생성하였다.
- 부문별 실태, 종합 실태를 분석하고 과거 지수와 비교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림 2-1. 지수 개발 및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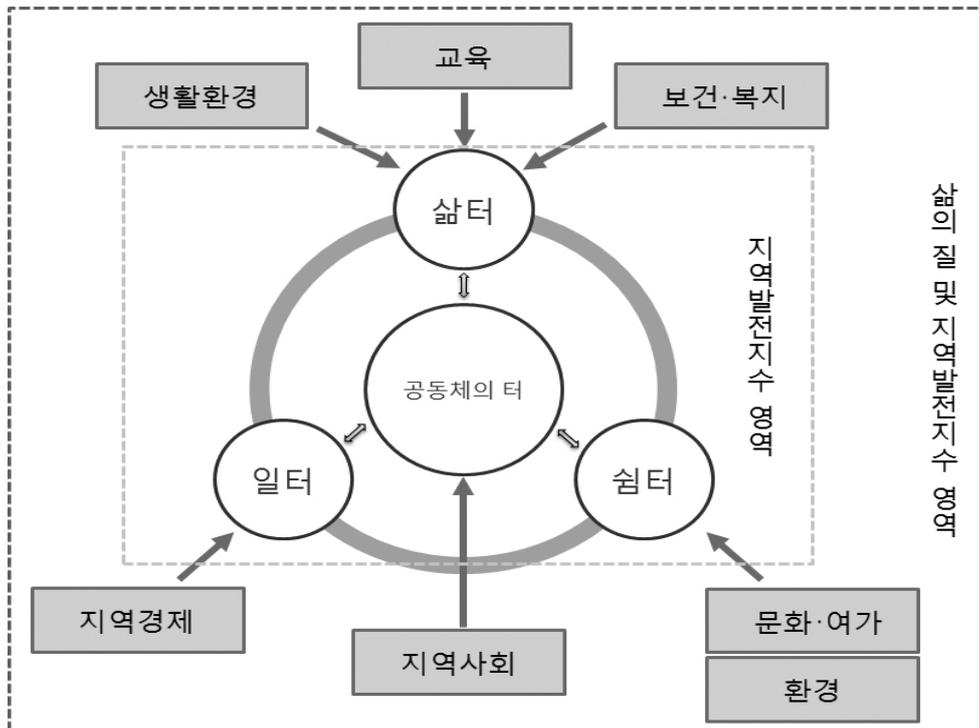
2. 2015년 삶의 질 지수 개요

2.1. 2015년 삶의 질 지수 구성

- 2015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는 연도별 비교·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의 지수 구성과 지표를 따르도록 구성하였다.
 - 2014년도까지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는 ‘지역발전지수’²로부터 출발하여 삶의 질에 관련되는 7대 정책 부문에 맞춘 7개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이다<그림 2-2>.
 - 생활환경: 주거, 생활기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관련 부문
 - 지역경제: 일자리, 소득 관련 부문
 - 지역사회: 사회 활력과 성장 잠재력 관련 부문
 - 교육: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포괄
 - 환경: 쉼터로서의 지역
 - 보건·복지: 복지 정책의 대상별로 지표를 구분
 - 문화·여가: 문화기반과 체육시설

2 지역발전지수(RDI: Region Development Index)는 시·군별 발전 수준과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송미령 외, 2012).

그림 2-2.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개념 영역(2012~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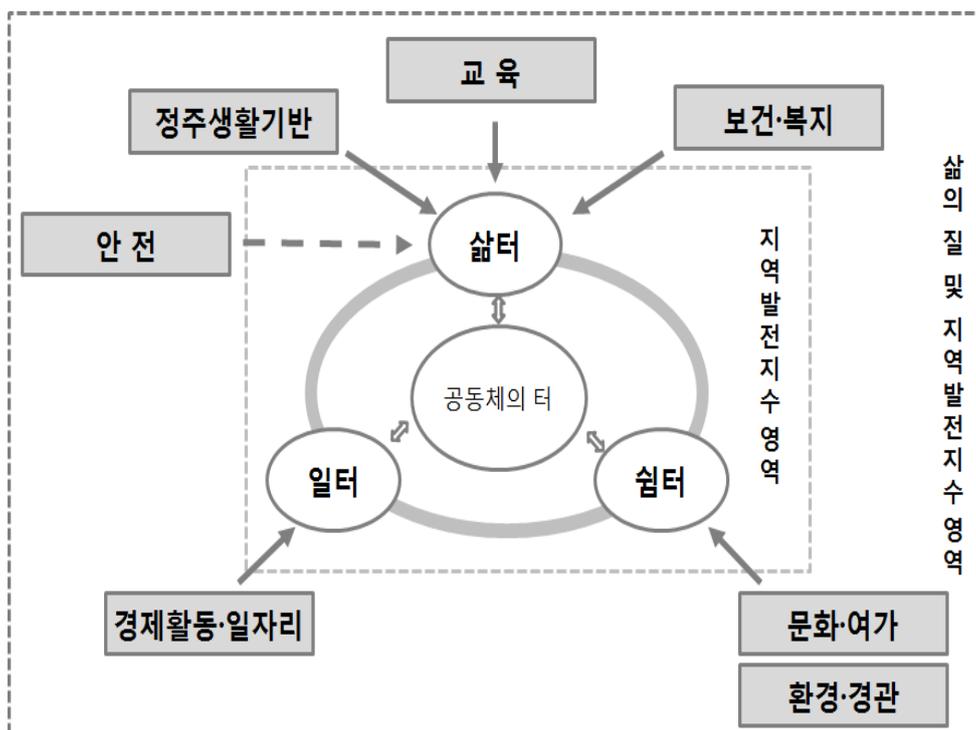
출처: 송미령 외, 2013.

- 이에 더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관련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 제3차 기본계획에 맞추어 새롭게 추가된 안전 영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으로 구성하였다.
 - 2014년까지 지역역량 부문이 포함되었으나, 제3차 계획에서 지역역량은 정책 영역이 아닌 추진 체계의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지수 구성에 반영하였으며, 부문별 명칭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맞추어 수정하였다³(그림2-2).

3 과거 지수와의 비교를 위해서 2015년 연구에서도 지역역량 부문의 지수를 도출하였

- 보건·복지: 복지 정책의 대상별로 지표를 구분
- 교육: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포괄
- 정주생활기반: 주거, 생활기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관련 부문
- 경제활동·일자리: 일자리, 소득 관련 부문
- 문화·여가: 문화기반과 체육시설
- 환경·경관: 쉼터로서의 지역
- 안전: 자연재해, 범죄, 교통 관련 부문

그림 2-2.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개념 영역



다. 단, 2015년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는 지역역량 부문을 제외하고 안전 부문을 포함시켜 지역 간 비교·분석하였다.

- 부문별 세부지표 또한 전문가 설문과 통계분석을 통해 구성된 기존의 지표 체계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안전 부문과 관련한 지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 현재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는 연구진 회의, 통계 가용성 여부 조사, 전문가 설문과 통계 분석 등을 통해 2013년 선정되었다.
 - 안전 부문의 지표는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재해, 범죄, 교통과 관련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진 회의와 통계 가용성 여부 조사를 통해 세부 지표를 도출하였다.
 - 지표와 갱신한 통계 자료의 목록은 <표 2-1>과 같다.

표 2-1. 부문별 지표와 세부 내용 및 갱신 여부

구분	지표	내용	비고
보건·복지	인구 천 명 당 의료인 수	• (의료인 수/인구)×1,000 • 의료인: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갱신
	1km ² 당 의료기관 수	• (의료기관 수/시·군 면적)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갱신
	영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 수	• (보육시설 수/영유아 인구(5세 미만))×1,000	갱신
	고령인구 천 명 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수	•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65세 이상인구)×1,000	갱신
	인구 천 명 당 전문의 인원 수	•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원 수/인구)×1,000	갱신
교육	1km ² 당 학교 수 (초·중·고·특수학교)	• 총 학교수(초·중·고·특수학교)/시·군 면적	갱신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	갱신
	대학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4년제, 2년제 포함)/졸업자 수)×100	갱신
정주 생활 기반	노후주택 비율	• (준공 30년 초과 주택 수/총 주택 수)×100	-
	상·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하수도 보급률)/2	갱신
	인구 천 명 당 생활서비스 종사자 수	• (생활서비스 종사자수/인구)×1,000 • 생활서비스: 슈퍼마켓, 약국, 목욕탕, 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갱신
경제 활동·일자리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 표본조사	갱신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 수	• (총 사업체 종사자 수/경제활동인구)×1,000	갱신
	1인당 지방소득세	•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표 명칭 변경	갱신

구분	지표	내용	비교
	재정자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자치단체 예산규모: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세입기준) 	갱신
문화·여가	문화기반시설 수	•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갱신
	인구 천 명 당 공원조성 면적	• 공원: 도시공원(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갱신
환경·경관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배출량 / 인구 • 생활폐기물: 순수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갱신
	1km ²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시·군 면적(km ²)	갱신
안전	인구 천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교통사고사망자 수/인구)×1,000	신설
	범죄 안전	• 시·군별 범죄안전 등급	신설
	자연재해 피해율	• 연간 시·군별 자연재해 피해액	신설
(지역사회)*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총 인구)×100	갱신
	인구 1천 명 당 순인구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인구이동/인구)×1,000 • 순인구이동: 전입인구-전출인구 	갱신
	전출률	• (지역 외부로 이동 인구/인구)×1,000	갱신
	연평균 인구 성장률	• (당해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등록인구 포함)	갱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 (자살자 수/인구)×100,000	갱신

*주. 지역사회 부문 지표는 전년도 지역사회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도출하였으며, 종합지수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2.2. 삶의 질 지수 생성을 위한 부문별 가중치 산출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 지수 부문별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 2014년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8개 영역(안전 부문 포함)에 대하여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제 3차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에 대해 전국 읍·면부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총 1,775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014년과 동일한 방식인 순위다중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 순위다중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면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쉽게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2015년 각 부문의 가중치를 보면 이전 연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수의 차이는 있으나, 2014년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 환경·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타 영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삶의 질 지수 부문별 가중치

구 분	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	(지역 사회)
2013년	0.144	0.168	0.153	0.161	0.078	0.168	-	0.128
2014년	0.308	0.106	0.149	0.185	0.079	0.061	-	0.112
2014년	0.248	0.091	0.131	0.163	0.078	0.060	0.126	0.101
2015년	0.242	0.103	0.159	0.192	0.091	0.059	0.104	0.051

3. 2015 삶의 질 지수 산출

3.1. 부문별 세부지표의 표준화

- 농어촌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7개 부문 22개 세부지표)들의 측정치 단위가 서로 상이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측정치 단위를 같은 척도로 변환하는 적절한 표준화 방법의 선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3.1.1. 부문별 세부지표에 선형 변환 표준화 적용

- 삶의 질 지수의 세부항목별 지표들은 서로 다른 측정값과 스케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지수로 합산하는 과정에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 2013년도 연구부터는 선형 변환 표준화를 활용하고 있다.
 - 일반적인 표준화 방법으로 사용되는 z-score 방법은 평균이 0인 음수와 양수를 갖는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경우 각 지표 값들을 합산하게 되면 양수와 음수 값이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표준화된 최하 음수 값만큼 양수화 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화된 지표는 최대, 최소 범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합산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z-score의 표준화 방법은 자료가 정규분포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연구부터는 적용이 용이한 선형 변환 방법을 통해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 선형 변환 방법은 값이 증가할수록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

는 최댓값 표준화(1),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는 최댓값 표준화(2) 방식 등이 있다.

$$(1) \quad x'_{ij} = \frac{x_{ij} - x_j^{\min}}{x_j^{\max} - x_j^{\min}} \times 100 \quad \text{혹은} \quad (2) \quad x'_{ij} = \frac{x_j^{\max} - x_{ij}}{x_j^{\max} - x_j^{\min}} \times 100$$

- 표준화된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27개 세부지표 중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영향을 가지는 지표로 노후주택비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kg/일),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ton/km²), 고령화율(%), 전출률(%), 자살률(%), 인구 천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재난재해 피해액 등에는(2)의 표준화 방식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지표에는(1)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 표준화 값의 100이라는 값은 절대적인 100점이 아니라, 각 지표별로 가장 좋은 수치를 가진 지역을 100점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며, 이에 각 지역별로 구해지는 표준화된 수치는 가장 좋은 지표값을 지닌 시·군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관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냈다.

3.2. 부문별 지수 산출 결과

- 각 부문별 세부지표를 합산하여 부문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하였다. 각 부문별 세부지표는(1/부문별 지표 수)의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결과 내용은 지난해와 같이 부문별 가중치 순위에 따라 기술하고 각 시와 군별로 지수 값 상위 10위를 기술하였다.

3.2.1.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 지수는 인구 천 명 당 의료인 수, 1km²당 의료기관 수, 영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 수, 고령인구 천 명 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수, 인구 천 명 당 전문의 인원 수 등으로 구성된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지닌 시는 경기도 부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로 나타났으며, 지수가 가장 높은 군은 전라남도 화순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나타났다.
 - 전체 지역에서 화순군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화순군을 제외한 시·군 통합 순위의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일반시 지역이며, 시지역과 군지역 간 격차가 크다.
-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군지역 지수값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 가장 낮은 값을 지닌 10개 지역은 모두 군지역으로 나타났으며, 8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2개 지역도 농촌성이 우세한 중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보건·복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경기도 부천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의정부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고양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칠곡군
경기도 성남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기도 구리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남도 목포시	충청남도 홍성군

- 보건·복지의 지역별 분포도인 <그림 2-3>을 보면 보건·복지 지수가 낮은 지역은 강원도의 영동 지역과 경상북도 북부 그리고 전라도 내륙 일부 지역이며, 이는 2012년 이후 지난 3년간 결과와 유사하다.
-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도시들과 지역별 거점 도시들의 지수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4분위에 속한 대부분의 시·군은 농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보건·복지 부문 4분위 지도



3.2.2.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지수는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 수,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자주도 등 경제활동과 지역 재정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된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지닌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 화성시, 충북 괴산군, 충남 단양군,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로 나타났다.
 - 지수가 높은 지역 중 시지역은 대기업 생산시설이 입지하는 곳으로 과거에도 계속해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 이 외에도 금산군, 함안군, 고성군, 평창군 등 대도시 주변이 아닌 군지역의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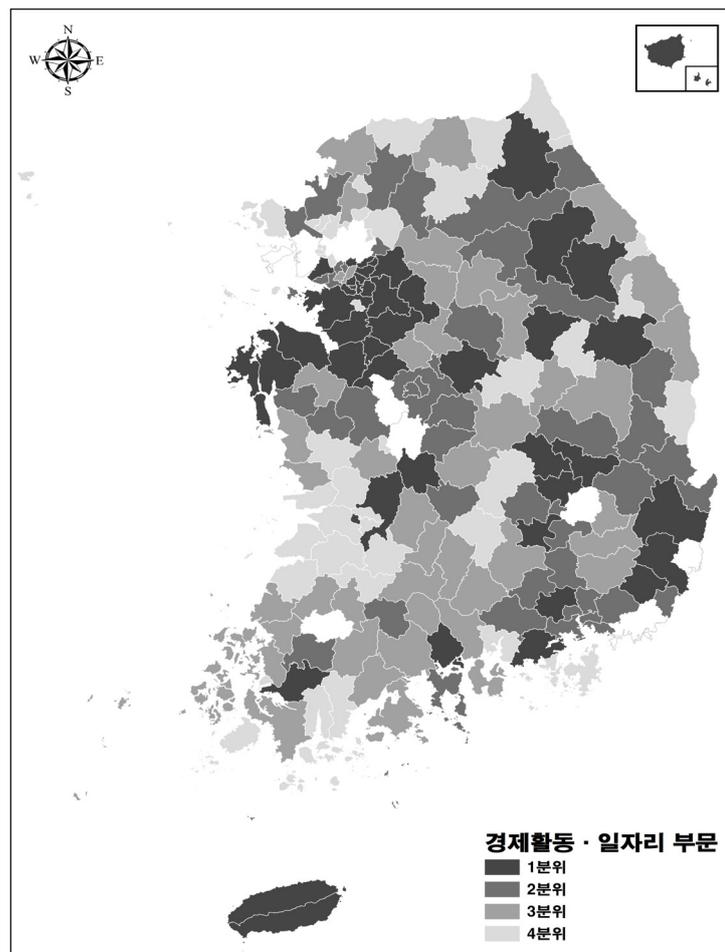
표 2-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경기도 화성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남도 양산시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이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영암군
충청남도 당진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기도 과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경기도 성남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기도 안성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도 평창군

- 또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는 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위 10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일반시(5개)와 도농통합시(4개)지역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 하위 10개 시·군 중 도시지역에 속한 지역은 4개, 중간지역에 속한 시·군은 5개였으며,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4분위 지도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지수의 지역 분포를 나타낸 <그림 2-4>를 보면, 지수 상위 지역은 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제조업 집적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보건·복지 부문과 마찬가지로 직전년도 지수 분포와 유사한 형태이다.
 -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광역시 주변 시·군 지수값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4분위 지역은 주로 경기·강원의 접경지역과 전라남·북도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 괴산군, 단양군, 강원도 정선군, 평창군, 경남 함안군, 고성군 등 일부 군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지수 기준 상위 1분위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3. 정주생활기반 부문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지수는 노후주택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인구 천 명 당 생활서비스 종사자 수 등으로 구성되며 정주환경과 관련한 기초 생활인프라의 구축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기초 생활인프라와 관련하여 높은 지수 값을 지닌 지역은 충북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진천군, 경기 구리시로 나타났다.
 - 뒤를 이어 수도권 소재 일반시와 전주시, 목포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주요 거점 도시의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의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지역에 비해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지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수요(중요도)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촌의 열악한 기초생활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지수 기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군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10개 시·군 중 8개 지역은 농촌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인구 규모가 큰 일반시나 도농통합시에서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정주생활기반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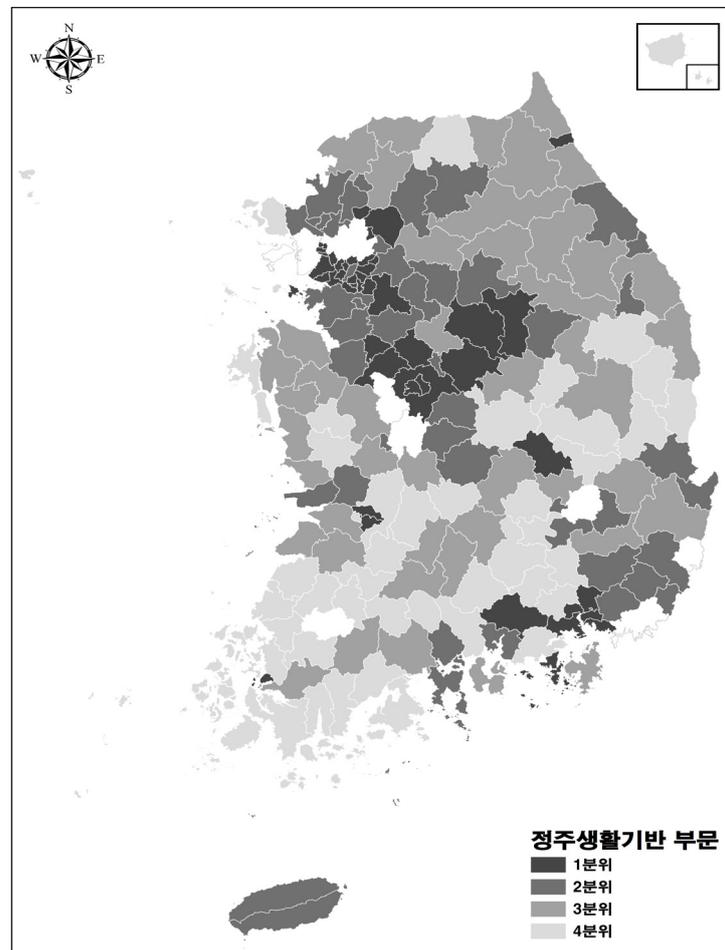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기도 구리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성남시	충청북도 옥천군
경기도 안산시	충청북도 단양군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남도 목포시	충청북도 보은군
경기도 의정부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 정주생활기반 부문 지수의 지역 분포를 나타낸 <그림 2-5>를 살펴보면 수도권권과 충청 내륙지역의 지수 값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 대도시권 지역 외 충청북도 시·군이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 타 지역에 비해 지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대적으로 지수 값이 낮은 4분위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남·북도 지역, 경북 북부지역 그리고 경남 내륙지역의 시·군지역이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경우 일부 대도시 주변을 제외하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의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정주생활기반 부문 4분위 지도



3.2.4. 안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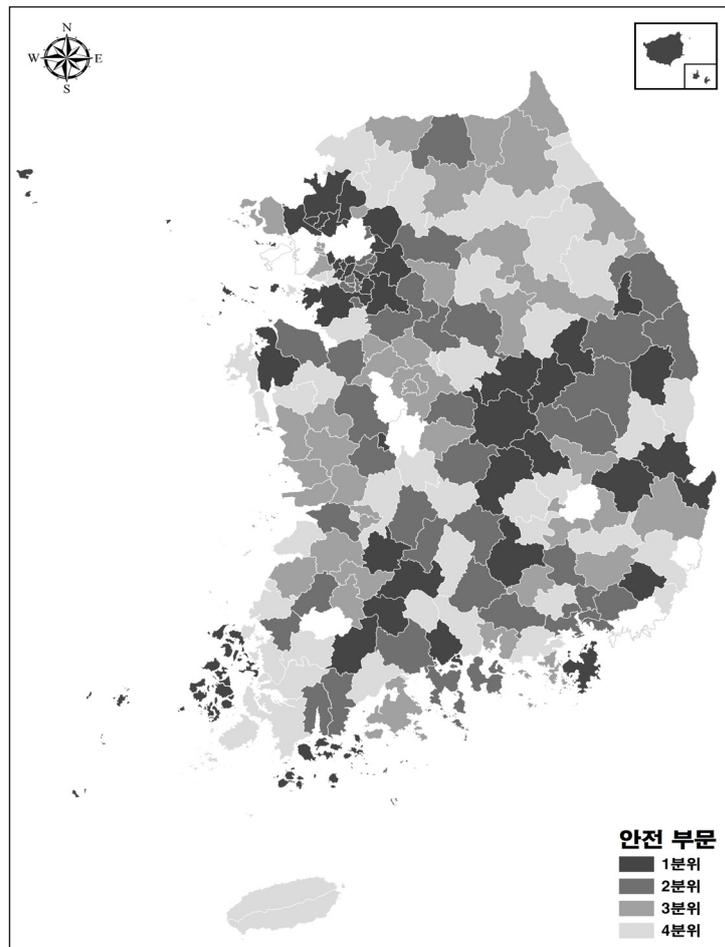
- 새롭게 삶의 질 지수로 포함된 안전 부문 지수는 교통, 재난·재해, 범죄 현상 등과 관련하여 인구 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연재해 피해액, 범죄 안전 등급으로 구성하였다.
- 안전 부문 지수의 분포는 대체로 수도권 지역과 섬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 인천 옹진군, 경기 과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충남 계룡시가 안전 부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뒤를 이어 의왕, 하남, 고양시 등 수도권 도시들의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지역의 경우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완도군 등 해안가, 섬 지역의 지수 값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안전 부문의 지수가 가장 열악한 하위 10개 지역은 모두 군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상황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 안전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경기도 과천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용인시	경상북도 울릉군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합천군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남도 신안군
경기도 의왕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기도 하남시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기도 고양시	전라북도 임실군
경기도 파주시	전라남도 곡성군
경기도 김포시	전라남도 화순군

- 안전 부문 지수의 지역 분포를 나타낸 <그림 2-6>을 보면, 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주변 시·군의 지수 값이 높은 특징을 볼 수 있다.
- 대도시지역과 도서지역의 뒤를 이어 경북 북부지역과 전남 및 경남 내륙 지역 등 소백산맥을 따라 분포하는 시·군의 안전 부문 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 강원도 지역과 전남 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수 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 안전 부문 4분위 지도



3.2.5. 교육 부문

- 교육 부문 지수는 1km² 당 초·중·고등학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4년제 및 2년제 대학 진학률의 지표로 구성된다.
- 교육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지역은 경기 부천시, 인천 옹진군, 경북 봉화군, 경기 수원시, 광명시이다.
- 과거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분석 결과 교육 부문 지수가 높은 곳은 주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지만, 2015년 지수에서는 옹진, 봉화군 외에 군위군, 영양군, 의성군 등 농촌지역이 5개 군이 상위 10개 시·군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도 교육 부문 지수 기준 상위 30개 시·군 중 24개 지자체가 군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수 값 상위 시·군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7. 교육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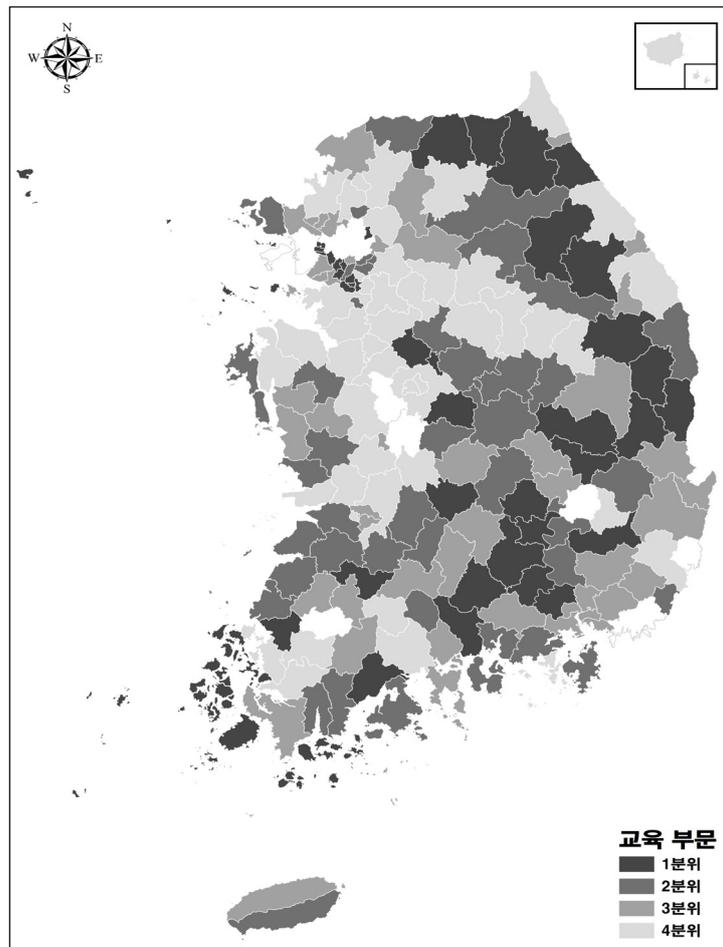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기도 광명시	경상북도 군위군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기도 군포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기도 구리시	경상북도 영덕군
경기도 안양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북도 보은군
경기도 오산시	강원도 인제군

- 교육 부문 지수의 지역 분포를 나타낸 <그림 2-7>을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농촌 지역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지수 값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 타 부문의 지수 값 분포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 강원도, 경북북부, 경남 내륙지역 등 농산촌 지역들 중 다수가 지수 값 기준 상위 1분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달리 도시지역이 아닌 경기 남부 및 접경지역, 충청, 호남의 일부 시·군지역은 같은 농촌 지역이지만 지수 값이 낮은 4분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교육 부문 4분위 지도



3.2.6. 문화·여가 부문

- 문화·여가 부문은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 명당 공원조성 면적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 문화·여가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로, 이는 2014년 결과와 동일하다.
- 문화·여가 부문의 경우 주로 인구가 많은 지역 거점도시들의 지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수값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 중 대부분 지역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시·군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화·여가 부문 지수값이 가장 낮은 시·군 대부분은 농촌의 군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문화·여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강진군
경상남도 진주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기도 용인시	전라남도 영암군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 문화·여가 부문 지수의 지역 분포를 나타낸 <그림 2-8>을 보면,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평균값을 상회하는 지역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 강원 남부 지역과 전남·북, 경남 남부 지역의 시·군이 지수값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화·여가 부문의 지수 분포가 타 부문과 구분되는 특징은 동일 도 내에서도 시·군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도별로 문화·여가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 시·군과 낮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의 경우에도 지수 값의 편차가 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3.2.7. 환경·경관 부문

- 환경·경관 부문 지수는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단위면적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표로 구성된다.
- 환경·경관 부문 지수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지역 내에서도 대체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환경 부문 지표의 상위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 환경·경관 부문의 지수값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군지역으로, 이는 작년 조사결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 2-8. 문화·여가 부문 4분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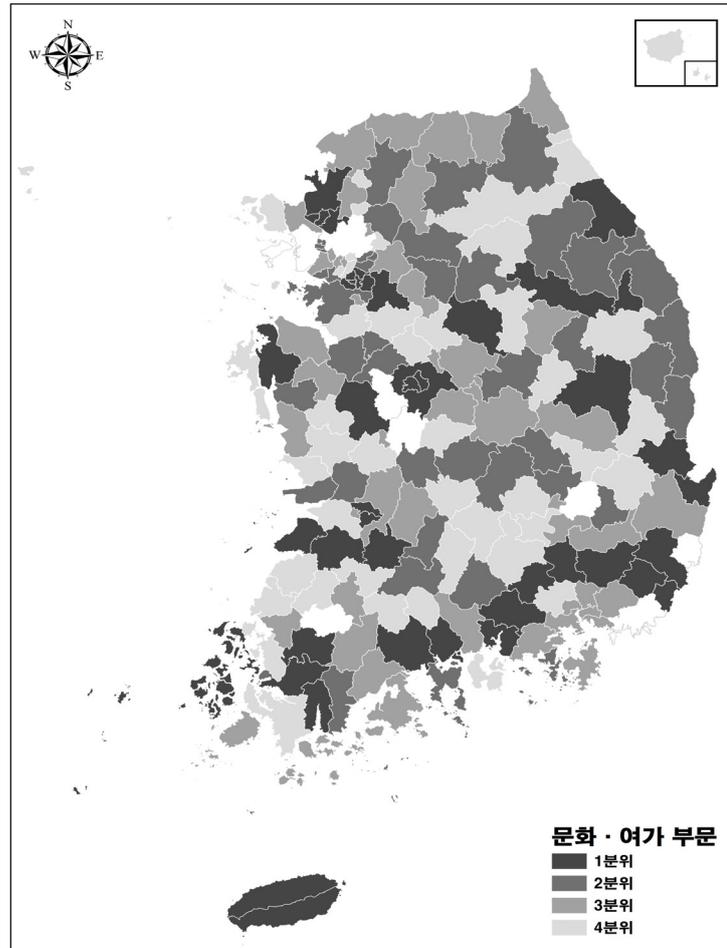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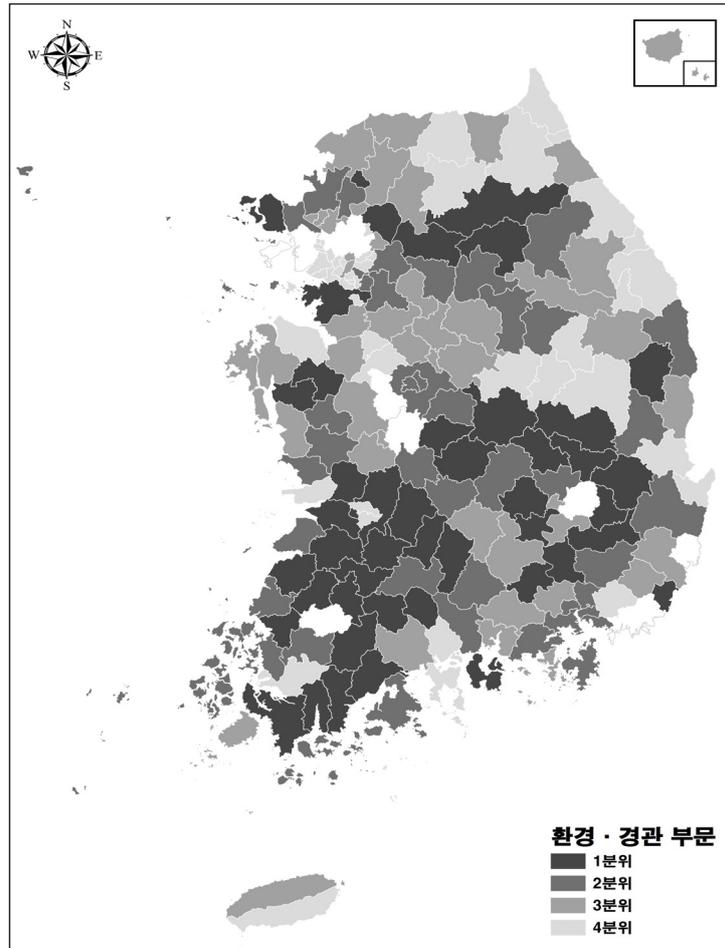


표 2-9. 환경·경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북도 임실군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남양주시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김제시	경기도 양평군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동두천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상주시	충청남도 예산군

- 환경·경관 부문 지수의 지역 분포를 나타낸 <그림 2-9>를 살펴보면, 남부지역의 농어촌 시·군지역과 강원도 일부 시·군지역의 지수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상위 1분위에 속하는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며, 수도권 주변 도시와 경상북도 북부 지역, 강원 영동지역 및 접경지역의 지수값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 타 부문의 지수 분포와 달리 수도권이나 부산 주변의 도시들의 지수값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9. 환경·경관 부문 4분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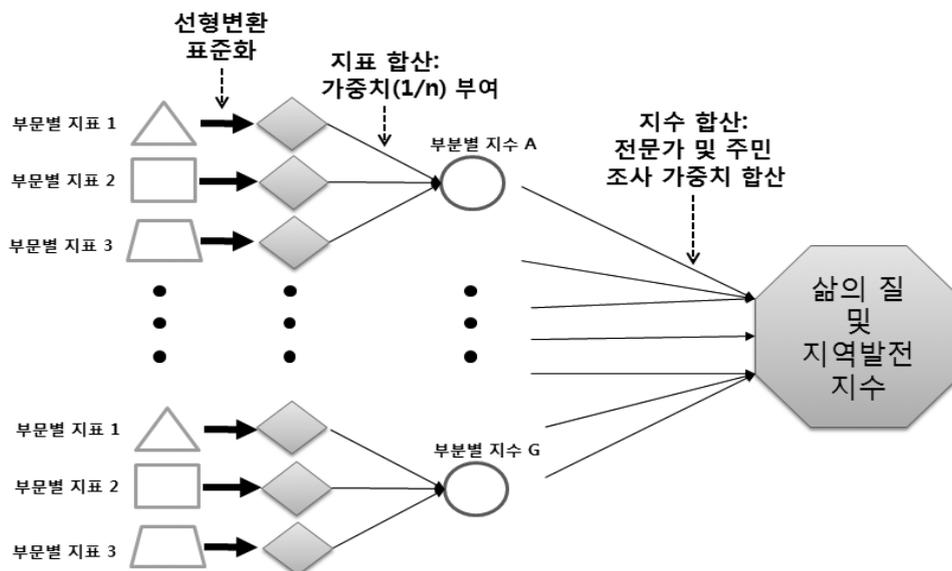
3.3.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종합

3.3.1. 부문별 지수의 합성을 통한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산출

○ 부문별 지수로부터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산출한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그림 2-11>.

- 각 부문별 지표들은 선형변환을 통한 표준화 후 각 부문별 지수로 합산되었다.
- 각 부문별 지수는 다시 주민 조사를 통해 산출된 가중치가 곱해져 합산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합산된 결과가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이다.

그림 2-10.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산출 과정



출처: 송미령 외, 2013.

3.3.2. 부문 지수 간의 상관관계

- 농촌 지역에서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부문 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대부분 0.6 이하의 약한 상관관계이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특정 정책 부문이 다른 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수의 구성이 독립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표 2-11>.

표 2-10. 부문 지수 간 상관관계

구분	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	삶의 질 지수
보건· 복지	1	-.193*	.564**	-.178*	.152	-.244**	.088	.566**
교육		1	-.271**	-.208**	-.174*	.034	-.033	-.145
정주생활 기반			1	.098	.235**	-.423**	.093	.727**
경제활동· 일자리				1	.108	-.077	-.160*	.272**
문화· 여가					1	-.243**	-.064	.402**
환경· 경관						1	-.021	-.041
안전							1	.365**
삶의 질 지수								1

주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보건·복지 부문은 정주생활기반 등 삶의 질 지수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들은 상호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을 나타내고 있다.
- 교육 부문은 모든 부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교육 부문의 지수(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진학률)가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 있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부문 지수는 정주생활기반, 보건·복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 결과와 동일하다.
 - 정주생활기반(정주생활)과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 농어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분야로 이는 농어촌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부문별 영향력과 주민들의 인식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4.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농어촌 실태 분석

4.1. 종합 실태 분석

4.1.1.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값의 분포

- 일반시를 제외한 전국 138개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값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도농통합시일수록 종합지수 값이 높게 산출되었다<그림 2-12>.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시·군에서 종합지수 값이 높게 산출되었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상위 25%(35개 시·군)에는 도농통합시가 30개, 군은 5개로 나타났다. 2014년 상위 25%에 도농통합시가 27개, 군이 8개 포함되었던 것에 비해, 군 지역의 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 ※ 상위 35개 시·군: 화성시, 화순군, 청주시, 구미시, 창원시, 제주시, 용인시, 진주시, 이천시, 아산시, 충주시, 천안시, 양산시, 괴산군, 포항시, 밀양시, 통영시, 파주시, 계룡시, 남양주시, 울주군, 광양시, 남원시, 단양군, 원주시, 광주시, 양주시, 춘천시, 김해시, 기장군, 순천시, 서귀포시, 공주시, 강릉시, 서산시
- 반면에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하위 25%(35개 시·군) 지역은 모두 군지역으로 나타났다.
 - ※ 하위 35개 시·군: 진도군, 고성군(강원), 해남군, 영광군, 보성군, 예천군, 하동군, 태안군, 부여군, 군위군, 완도군, 강화군, 울릉군, 장성군, 신안군, 응진군, 고창군, 영덕군, 무안군, 성주군, 양양군, 합천군, 의성군, 영암군, 봉화군, 예산군, 청송군, 청양군, 연천군, 화천군, 철원군, 장흥군, 산청군, 고흥군, 진안군

-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및 지역 발전 지수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조사 결과는 여전히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주변도시와의 접근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정책 영역별로 시·군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시·군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1.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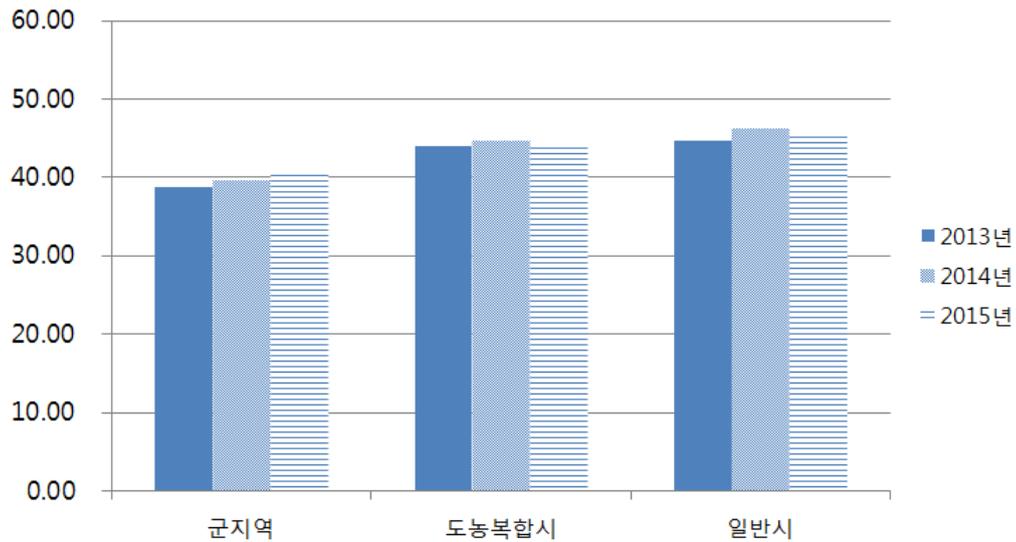


4.2.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 지속적으로 산출해 온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 지수 값을 비교하였다.
 - 지수 도출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는 표준화를 통해 각 지표별 최댓값에 대한 상대적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절댓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지수 값의 상승과 하락이 삶의 질 여건의 변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지수 값의 비교는 동일 시점의 지역 간 비교에서 보다 잘 활용 될 수 있으며, 단 각 지표의 최댓값, 최솟값 변화가 크지 않다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점 비교는 가능하다.
- 각 연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종합 지수를 보면 2013년에는 139개 시·군⁴이 평균 41.38이었으며, 2014년에는 평균 42.29, 2015년은 45.73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의 <그림 2-13>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부터 군지역과 도농통합시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도농통합시, 일반시 간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격차도 완화되고 있다.
 - 2013년 기준 군지역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는 일반시지역의 86.8%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88.4%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지수 격차도 2013년 5.92에서 2015년 5.30으로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하였다.

⁴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이후 2014년 지수부터 138개 시·군을 기준으로 지수 값을 도출하였다.

그림 2-12. 연도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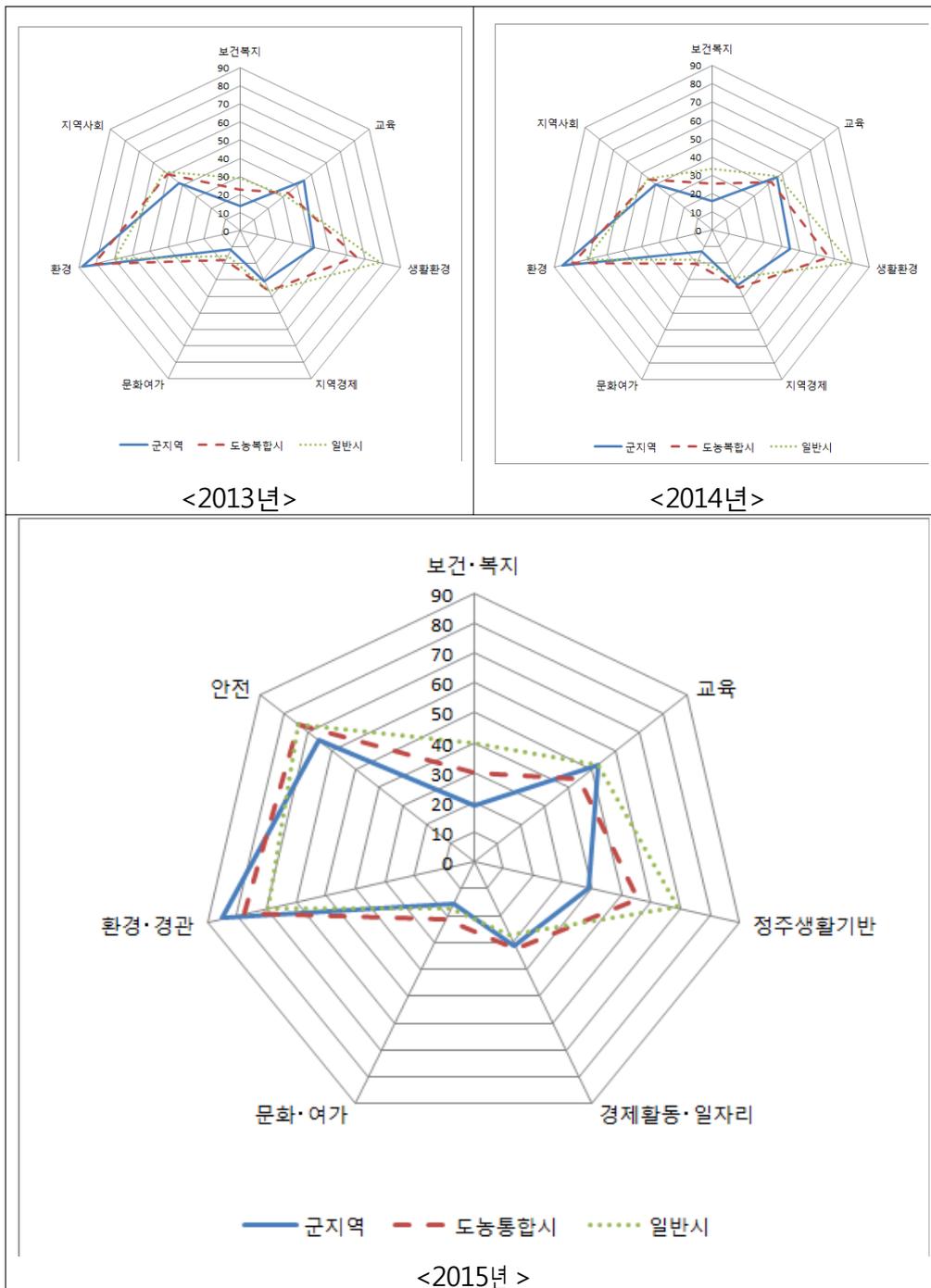


- 부문별 지수 값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의 각 부문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12>.
 - 대부분의 영역에서 군지역과 일반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지역 간 삶의 질 지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일자리 및 환경·경관 부문의 경우 군지역의 지수가 일반시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부문의 경우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지역의 삶의 질 지수가 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 타 영역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는 일반시와 군지역 간 격차 및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간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경우 도시지역과 군지역 간 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영역에 비해 지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변화

부문	연도	군지역	도농통합시	일반시	일반시·군 차이	도농통합시· 군 차이
보건·복지	2013년	13.83	22.39	28.93	15.1	8.56
	2014년	15.88	25.26	33.29	17.41	9.38
	2015년	19.12	29.64	39.85	20.73	10.52
교육	2013년	44.35	33.85	31.60	-12.75	-10.5
	2014년	46.24	42.41	47.14	0.9	-3.83
	2015년	52.35	44.76	52.51	0.16	-7.59
정주생활 기반	2013년	41.15	64.71	78.24	37.09	23.56
	2014년	44.67	66.54	79.13	34.46	21.87
	2015년	38.67	55.51	68.66	29.99	16.84
경제활동· 일자리	2013년	30.98	36.54	36.77	5.79	5.56
	2014년	33.05	34.74	28.87	-4.18	1.69
	2015년	31.26	32.41	27.22	-4.04	1.15
문화·여가	2013년	11.45	17.98	15.17	3.72	6.53
	2014년	12.66	20.33	17.93	5.27	7.67
	2015년	15.29	21.52	17.40	2.11	6.23
환경·경관	2013년	87.80	81.54	69.86	-17.94	-6.26
	2014년	85.13	79.01	71.74	-13.39	-6.12
	2015년	84.88	77.25	69.30	-15.58	-7.63
안전	2013년	-	-	-	-	-
	2014년	-	-	-	-	-
	2015년	65.48	73.83	74.07	8.59	8.35
(지역사회)	2013년	42.15	50.42	52.60	10.4	8.27
	2014년	39.91	44.68	45.31	5.4	4.77
	2015년	41.69	45.25	45.36	3.67	3.56

그림 2-13. 2013~2015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부문별 지수 변화



5. 소결 및 시사점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로 본 농어촌 삶의 질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삶의 질 정책 영역별로 도시(일반시, 도농복합시)지역과 농어촌(군)지역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인 삶의 질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농어촌(군)지역의 삶의 질 지수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일부 정책 부문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등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의 발굴과 추진은 여전히 중요

- 농어촌 주민 조사에서 타 영역에 비해 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나타난 보건·복지 영역의 경우 여전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경우 타영역과 비교했을 때, 도·농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와 농어촌 정주환경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민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발굴 시행이 필요하다.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 등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발전하여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정책 추진 필요

- 삶의 질 정책 영역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살펴보면, 동일한 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성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문화·여가 부문의 경우 주요 광역권 별로 중심도시와 주변 시·군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정주생활기반, 교육 등의 영역은 지역 간(시도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정책영역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낙후되고 저성장 지역에 대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와 추진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현실 반영률 제고 필요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 비교를 통해 정책과제 도출 및 추진상황 점검의 목적에서 도출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구역 형태에 기초한 현재의 지역 구분 방식은 농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구분의 기초에서 삶의 질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수의 산출과 지역 분류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 3 장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1. 조사의 목적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 발굴에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5년 및 2007년에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에 도·농 간 만족도 격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도·농 간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조사는 2014년의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수행하였다.

2. 조사 대상

-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은 농어촌 정비법 상 도시·농촌을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전 지역의 동을 도시로, 전 지역의 읍·면을 농촌으로 구분하였다.⁵
 - 최종 표본 수 3,044명 중 동지역 주민 1,269명, 읍·면지역 주민 1,775명을 표본 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행정구역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표본 할당 수는 <표3-1>과 같다.

표 3-1. 도시·농촌 구분방법 - 도시(동)/ 농촌(읍·면)

행정구역	모집단	동지역 표본 수	읍·면지역 표본 수
서울	8,395,085	278	0
부산	2,943,779	45	0
대구	2,022,947	43	0
인천	2,357,988	54	1
광주	1,154,727	14	0
대전	1,211,491	25	0
울산	929,335	15	0
세종	156,125	51	17
경기	8,022,161	259	368
강원	327,292	119	220
충북	654,258	48	130
충남	698,229	51	198
전북	513,688	48	124
전남	538,210	28	211
경북	533,866	122	311
경남	1,539,266	71	173
합계	31,515,030	1,269	1,775

⁵ 본 연구에서는 총 3,0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동지역 또는 읍·면지역 거주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표본을 제외하여, 총 3,044개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전화 인터뷰 조사에 해당하는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로 진행하였다⁶.
- 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30일 동안 진행하였다.
- 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3,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3-2. 조사 방법 및 개요

조사 대상	→	▪ 전국 17개 광역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	▪ 총 3,044명
표본 오차	→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2.32% Point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	▪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 2015년 10월 15일 ~ 11월 15일

⁶ 도시·농촌 주민 대상의 정주민족도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 조사 항목은 농촌과 도시 주민 간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분별 중요도와 7대 부분 세부항목별 만족도 그리고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과 이주 이유 등이다<표 3-3>.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중요도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 세부항목별 만족도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만족도 질문 시, 만족 정도에 따라 10점 척도(1~10점 부여)를 사용했다.

7 <부록 4>의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참조

표 3-3. 농촌·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삶의 질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질 만족도(행복감) ○ 정주 여건을 고려한 삶의 질 만족도 ○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부문별로 2~4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이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지역 ○ 거주 기간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상태 ○ 자가용 차량 소유 유무 ○ 가족 구성 ○ 가구 소득 ○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 ○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여부(귀농·귀촌한 경우, 년 수) ○ 마을 일(해사나 모임)에 대한 참여도

○ 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4>와 같다.

- 조사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인천/경기가 22.4%로 가장 많았고, 거주 기간은 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2.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간 가구소득은 4,000만 원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다.

표 3-4. 도·농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3,044	100.0	전체		3,044	100.0
거주 지역	서울	278	9.1	교육 수준	무학	69	2.3
	인천/경기	683	22.4		초졸 /중졸	395	13.0
	대전/충청	474	15.6		고졸	741	24.3
	광주/전라	425	13.9		대졸	1,629	53.4
	대구/경북	478	15.7		대학원 이상	210	6.9
	부산/울산/경남	306	10.0		모름/ 무응답	5	0.2
	강원/제주	404	13.3				
성별	남성	1,663	54.6	건강 상태	좋음	1,387	45.6
	여성	1,382	45.4		보통	1,037	34.1
연령대	19~29세	452	14.8	가정 생활 만족도	만족	1,582	52.0
	30대	490	16.1		보통	1,113	36.6
	40대	619	20.3		불만족	350	11.5
	50대	613	20.1	독신가구	323	10.6	
	60세이상	875	28.7		1세대가구	772	25.4
거주 기간	10년 미만	987	32.4	가족 구성	2세대가구	1,572	51.7
	10~19년	655	21.5		3세대가구	290	9.5
	20~29년	526	17.3		조손가구	15	0.5
	30~39년	304	10.0		기타	69	2.3
	40년 이상	577	18.9		미성년 가족유무	있음	866
혼인 상태	기혼	2,259	74.2	없음	964	52.7	
	미혼	787	25.8	귀농귀촌 여부	있음	378	12.4
연간 가구 소득	1000만원미만	535	17.5	직업	없음	2,671	87.6
	1000만원대	340	11.2		농업/임업/어업	633	20.8
	2000만원대	456	15.0		자영업	237	7.8
	3000만원대	573	18.8		사무/관리직	937	30.7
	4000만원이상	1,060	34.8		생산/기능/노무직	216	7.1
	모름/ 무응답	85	2.8		주부	441	14.5
				학생	156	5.1	
				퇴직	65	2.1	
				무직	269	8.8	
				기타	9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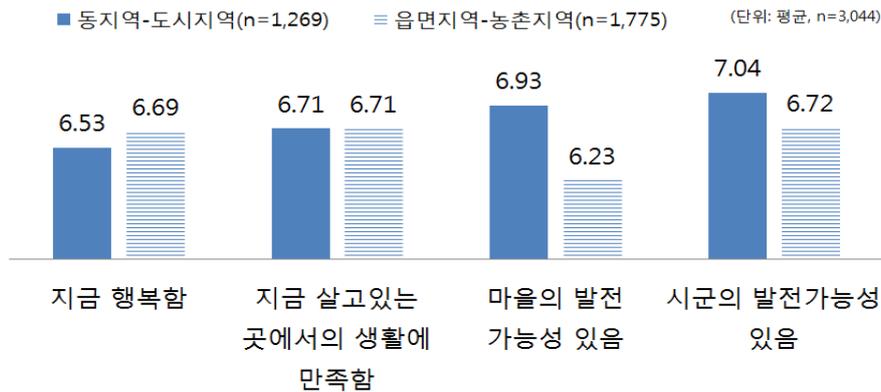
4. 주요 분석 결과

4.1. 도시·농촌 간의 정주 만족도 비교⁸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 자신이 지금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조사결과, 10점 만점 평가에서 도시지역이 6.53점, 농촌지역이 6.69점으로 농촌지역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6.71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촌 주민들은 시·군의 발전 가능성보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⁸ 2015년 도시·농촌 간의 정주만족도 비교는, 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읍·면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시계열 분석 결과

- 2012년부터 진행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의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⁹,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농촌 주민의 비율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014년 조사 결과 40.9%인 것에 비해, 2015년 조사 결과는 42.4%인 것으로 나타나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평균 점수에서도 2014년 조사 결과 6.08점에서 2015년 조사 결과에서는 6.69점으로 상승하였다.
- 또한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작년에 비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4년도 조사결과 27.7%에서 2015년도 조사결과 33.9%로 상승하였으며, 만족도 평균 점수 역시 2014년도 조사결과 5.06점에서 2015년도 조사결과 6.23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4년 조사 결과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014년 조사 결과 49.6%인 것에 비해, 2015년 조사 결과는 42.6%로 나타나 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 2012년~2014년까지의 조사결과는 농촌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이며, 2015년 조사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조사결과를 해당분석에 사용함.

-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014년 조사 결과 42.0%인 것에 비해, 2015년 조사 결과는 40.9%인 것으로 나타나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만족도 비율의 시계열 분포

단위: %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12년	19.7	44.6	35.7
	2013년	14.8	46.3	38.9
	2014년	9.6	49.5	40.9
	2015년	9.9	47.5	42.4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2013년	17.8	39.9	42.3
	2014년	9.5	40.9	49.6
	2015년	9.6	47.7	42.6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28.3	28.3	43.4
	2013년	30.7	21.3	33.8
	2014년	24.0	40.2	27.7
	2015년	14.8	51.0	33.9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15.9	20.1	64.0
	2013년	17.2	20.6	46.5
	2014년	10.5	36.2	42.0
	2015년	9.1	49.7	40.9

주1: 조사 응답자 중 해당 문항에 대해 무응답(‘잘 모름’)한 경우를 제외한 결과임.

주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2013년부터 도입한 세부문항으로 2012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음.

주3: 2012~2013년은 5점 척도(1점~5점), 2014년은 11점 척도(0점~10점), 2015년은 10점 척도(1점~10점)으로 조사함. 5점 척도의 경우는 1점~2점 부정, 3점 보통, 4~5점이 긍정으로 구분. 11점 척도에서는 0점~3점이 부정, 4점~6점이 보통, 7점~10점이 긍정임. 10점 척도의 경우는 1점~3점이 부정, 4점~7점이 보통, 8점~10점이 긍정으로 구분함.

표 3-6.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비 고
2012년	3.25	-	3.23	3.71	5점 척도
	(65.0)	-	(64.6)	(74.2)	
2013년	3.38	3.36	3.11	3.53	5점 척도
	(67.6)	(67.2)	(62.2)	(70.6)	
2014년	6.08	6.34	5.06	6.26	11점 척도
	(55.3)	(57.6)	(46.0)	(56.9)	
2015년	6.69	6.71	6.23	6.72	10점 척도
	(66.9)	(67.1)	(62.3)	(67.2)	

주1: 95% 신뢰수준에서 조사의 표본오차는 2012년 $\pm 5.2\%$ p, 2013년 $\pm 3.8\%$ p, 2014년 $\pm 3.59\%$ p

주2: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주3: 괄호 안은 100점 만점 환산 점수(2014년의 경우(평균점수 $\times 100$) $\div 11$ 로 계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조사결과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서 도시지역은 정주생활기반을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농촌지역은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1순위를 고르는 응답과 1순위~3순위까지의 선택을 합한 결과 모두에서, 도시지역은 정주생활기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를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다.
- 그에 반해 농촌지역의 응답자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1순위로 보건·복지를 꼽았고,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를 중요한 부문

으로 꼽았다. 도시지역의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던 보건·복지 부문은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3-7.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도시지역	1순위 비율	(1,269)	22.5	24.3	18.5	13.3	8.5	5.7	5.1
		순위	2	1	3	4	5	6	7
	1~3순위 비율	(1,269)	52.2	55.3	43.7	43.3	31.4	29.1	29.6
		순위	2	1	3	4	5	6	7
읍·면지역	1순위 비율	(1,775)	31.7	17.1	21.0	9.0	8.0	5.7	3.5
		순위	1	3	2	4	5	6	7
	1~3순위 비율	(1,775)	62.9	45.6	53.6	34.8	31.2	30.6	20.3
		순위	1	3	2	4	5	6	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결과

- 8대 부문별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평균 점수)를 살펴보았다. 전체 부문 평균 점수는 5.62점 조사되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2014년도 평균 점수 5.26점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6.61)과 정주생활기반(6.01)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5.91), 환경·경관(5.90), 교육(5.48)으로 중간 이상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 교육(5.48), 지역경제·일자리(4.77), 문화·여가(4.69)부부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문화·여가 부문이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2년부터 진행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의 추이를 확인해보면¹⁰,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부문은 지속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부문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 점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조사결과에 비해 2015년 조사결과 만족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된 부문은 문화·여가 부문이며, 그 다음으로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¹⁰ 2012년~2014년까지의 조사결과는 농촌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이며, 2015년 조사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조사결과를 해당분석에 사용함.

표 3-8.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

단위: 점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건 복지	2.8	3.61	5.69	5.62	6.19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16	5.91	5.81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2015신규)
				5.74	5.65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5.88	6.02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92	5.92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2.5	3.39	4.94	5.27	5.72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5.48	5.49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2015신규)	
				4.68	5.26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 생활 기반	3.3	3.02	5.29	5.78	6.52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4.97	6.01	5.75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4.82	6.10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57	5.7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 활동 · 일자리	2.1	2.92	4.15	4.77	4.62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55		4.89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29		4.83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2.2	2.52	3.55	4.69	4.80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77		4.59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 경관	3.4	3.82	5.72	5.90	6.30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79		5.04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015신규)
			5.83		6.36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	-	6.73	6.61	6.70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7		6.32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6.34		6.81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지역 사회)	2.8	3.46	6.06	(5.92)	(5.92)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5.98	(5.77)	(5.77)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전 체	2.7	3.25	5.26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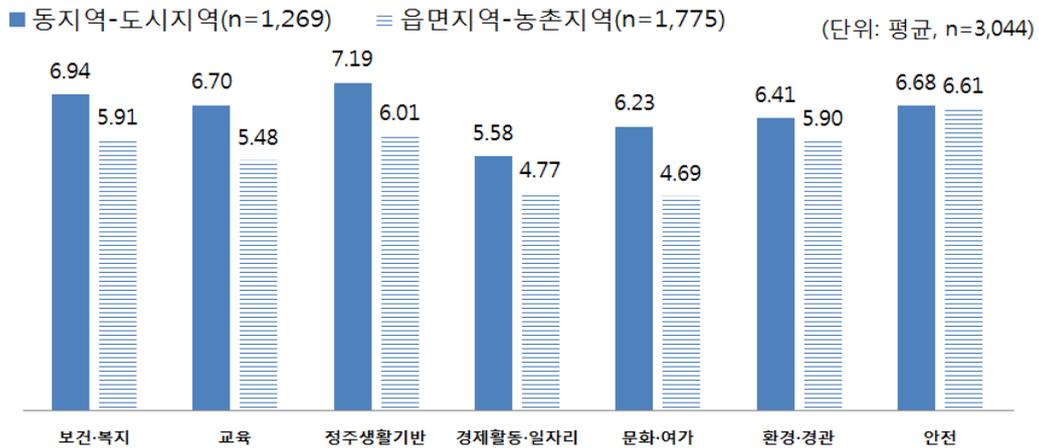
주1: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함에 유의.

주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도시와 농촌 주민의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고, 그 중에서도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간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문화·여가 부문이며, 이어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 순이다.

그림 3-2.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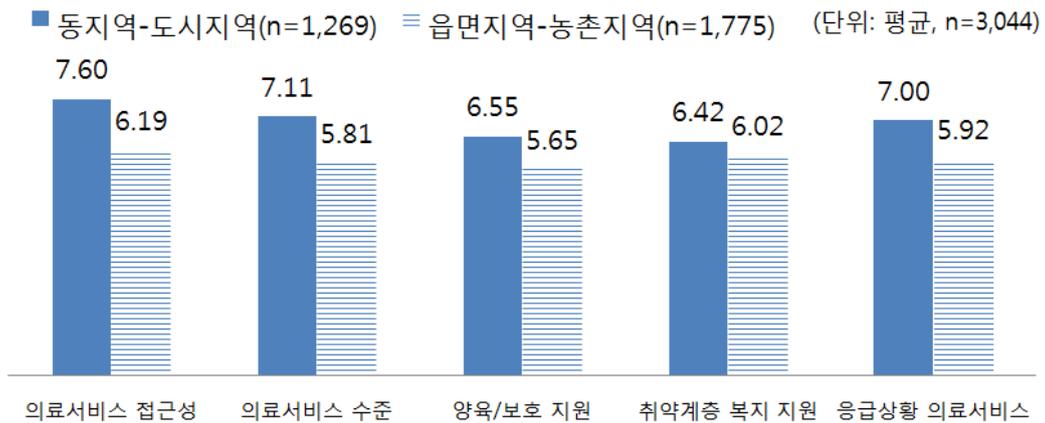


□ 7대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결과

○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응급상황 의료서비스 등 세부항목 모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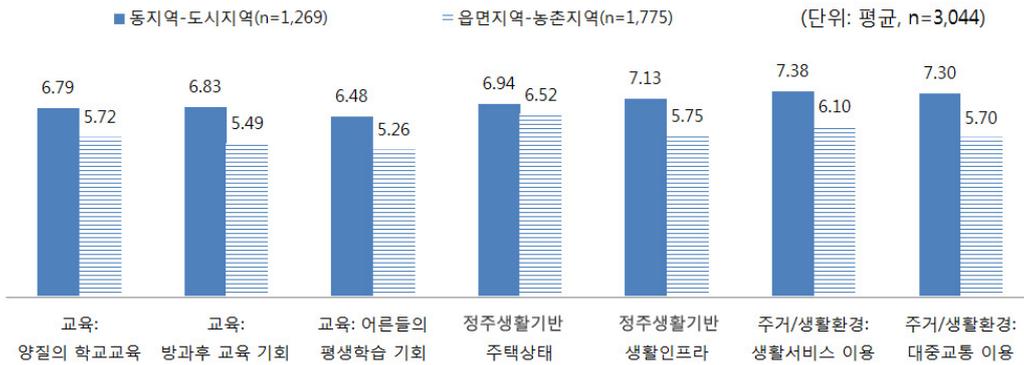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세부항목은 의료서비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부항목은 양육·보호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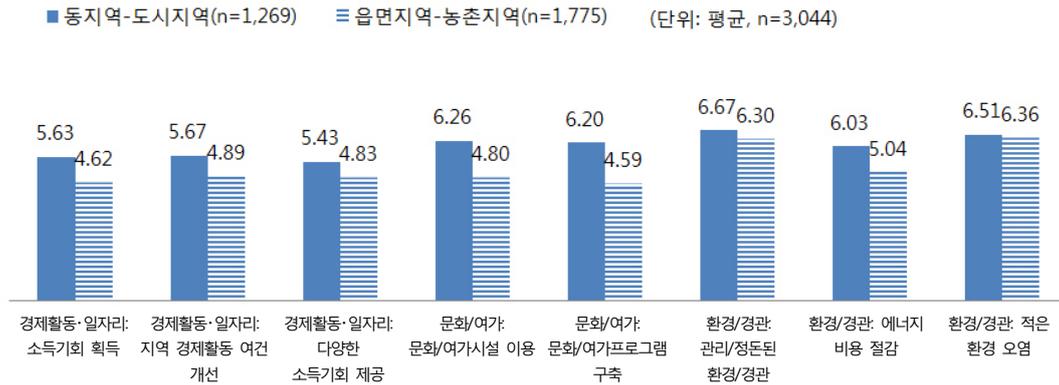
- 교육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양질의 학교 교육, 방과후 교육 기회,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등 세부항목 모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과후 교육 기회 항목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주택상태,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이용 등 모든 세부항목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에서 대중교통 이용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과의 만족도 점수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소득기회 획득, 지역 경제활동 여건개선, 다양한 소득기회 제공 등 세부항목 모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소득기회 획득 항목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문화·여가 시설 이용,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등 세부항목 모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항목에서 도·농 간의 차이가 더 컸다.
- 환경·경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적은 환경오염 등 모든 세부항목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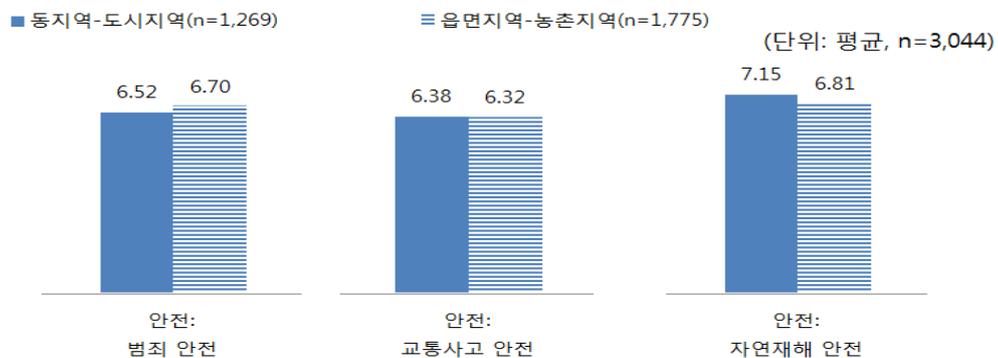
그림 3-5. 경제 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안전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범죄안전 항목은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사고 안전과 자연재해 안전의 세부항목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재해 안전 항목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교통사고 안전 항목이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림 3-6.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7대 부문 세부항목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만족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세부항목은 문화·여가 부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과 문화·여가시설 이용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 부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항목들 중 안전 부문의 범죄안전 항목만이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도시지역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모든 세부항목들에서는 도시지역의 만족도가 농촌지역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도·농간의 7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차이

부문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차이	세부 항목
보건·복지	7.60	6.19	1.41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11	5.81	1.3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2015신규)
	6.55	5.65	0.9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42	6.02	0.4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7.00	5.92	1.08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6.79	5.72	1.07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83	5.49	1.34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2015신규)
	6.48	5.26	1.22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부문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차이	세부 항목
정주 생활 기반	6.94	6.52	0.42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7.13	5.75	1.38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7.38	6.10	1.28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30	5.70	1.6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지역 경제 · 일자리	5.63	4.62	1.0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5.67	4.89	0.78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5.43	4.83	0.6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여가	6.26	4.80	1.46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20	4.59	1.61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경관	6.67	6.30	0.37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03	5.04	0.99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015신규)
	6.51	6.36	0.15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52	6.70	-0.18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8	6.32	0.06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7.15	6.81	0.34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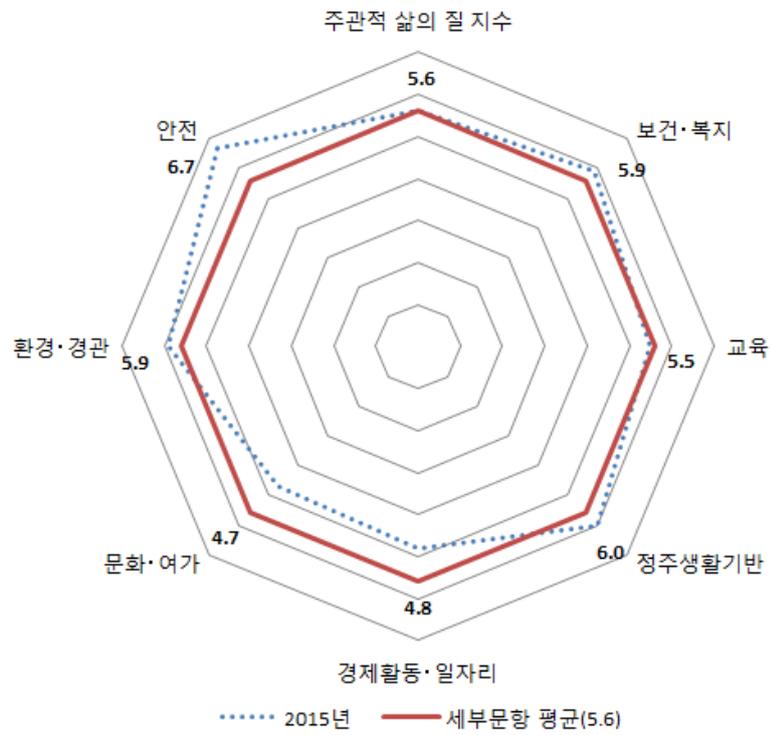
4.2.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2015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및 부문 지수

-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의 22개 세부분야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까지 10점 척도로 질문하여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와 전 부문의 종합 지수인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구하였다.
 - 7대 부문에 대한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는 각 부문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부문별로 2~4개의 세부분야항목으로 구성된다.
 -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의 주관적 만족을 종합하여 나타낸 값으로,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문들을 가중평균하여 구하였다. 가중평균 산출 시 사용한 부문별 가중치는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 2015년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5.6점(10점 만점)이며,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56.1점에 해당한다.
- 10점 만점으로, 2015년에는 부문별로 5점~6점 정도의 점수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등의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 전체 세부분야의 평균(5.62)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부문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 * 보건·복지(5.9점), 교육(5.5점), 정주생활기반(6.0점), 경제활동·일자리(4.8점), 문화·여가(4.7점), 환경·경관(5.9점), 안전(6.7점)

그림 3-7. 2015년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단위: 점)



□ 2012년~2015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다음의 표 14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 연도별로 주관적 삶의 질 지수와 각 부문 지수를 제시하였다.¹¹
-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5점 척도(응답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1~5점 부여)를 사용한 반면, 2014년과 2015년에는 10점 척도(응답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1~10점 부여)를 사용하였다.

표 3-10. 2012년~2015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구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분 지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
2012년 (5점 만점)	2.7점	2.8점	2.5점	3.3점	2.1점	2.2점	3.4점	-	2.8점
2013년 (5점 만점)	3.3점	3.6점	3.4점	3.0점	2.9점	2.5점	3.8점	-	3.5점
2014년 (10점 만점)	5.2점	5.7점	4.9점	5.3점	4.3점	3.1점	5.8점	6.5점	6.0점
2015년 (10점 만점)	5.6점	5.9점	5.5점	6.0점	4.8점	4.7점	5.9점	6.7점	5.8점

11 2012년~2015년 각 연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문항 구성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도 간 점수를 엄밀히 비교할 수는 없고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조사에서부터는 안전 부문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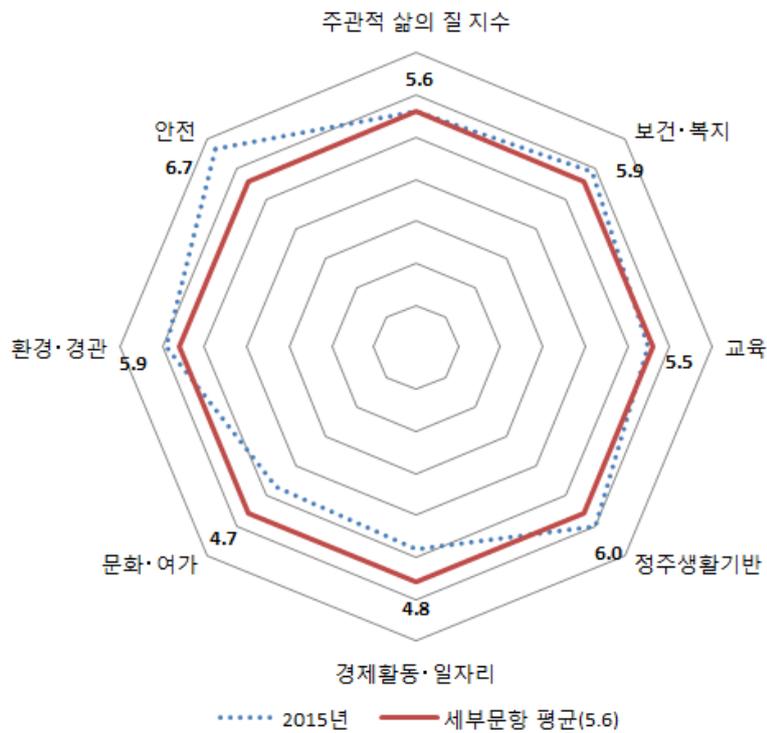
<2013년> 5점 만점에 대한 점수



<2014년> 10점 만점에 대한 점수



<2015년> 10점 만점에 대한 점수



□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1%가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과반수가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와 농촌주민의 이주 의향을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이주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16.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주하려는 지역에 어디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모두 과반수 이상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림 3-8. 이주 의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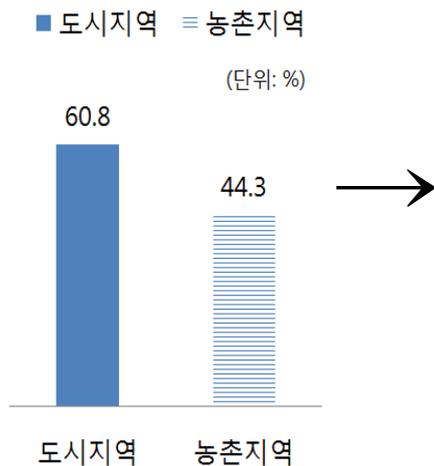


표 3-11. 이주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

구분	도시주민	농촌주민
도시로	57.4	57.4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18.9	19.7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18.1	17.2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5.2	4.8
모름/ 무응답	0.4	0.9
합계	100	100

- 응답자 중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를 이주 의향의 이유로 꼽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와 ‘교통이 불편하다’를 이주 의향의 이유로 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하려는 이유	응답비율(%)	
	도시주민	농촌주민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	12.0	15.0
교통이 불편하다	7.1	13.7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	16.8	4.1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12.8	6.6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6.9	9.8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5.1	9.8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3.5	7.6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7.6	3.3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1.9	7.9
난방비가 많이 든다	3.8	2.4
마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3.1	2.9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1.6	3.3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1.8	2.2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2.2	1.4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1.8	1.8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1.0	0.1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0.5	0.1
기타	10.1	7.6
모름/ 무응답	0.3	0.3
합계	100	100

5. 소결 및 시사점

- 농촌주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지시키고, 마을 발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들에 비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의 발전 가능성보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의 발전 가능성보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농촌주민들은 시·군의 발전이 마을의 발전까지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농촌주민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농업과 농촌 발전의 방향을 인지시키고,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농촌지역 주민들은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 결과, 보건·복지 부문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도시주민에 비해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농촌주민들이 생활을 영유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농촌지역에

서도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 농촌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농촌주민들은 보건·복지 부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결과, 농촌주민들은 문화·여가 부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세부항목의 만족도 평균을 분석해본 결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항목 중 소득기회 획득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컸다.
- 조사 결과, 농촌주민들은 농촌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창출 기회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경기침체가 전망됨에 따라 농업농촌 부문이 국가 경제의 완충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귀농, 귀촌, 청년창농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6차산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농촌의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부분이 됨에 따라,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 결과, 농촌지역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고, 도시와 농촌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이 문화·여가 부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증가와 함께, 전일제 여가시간을 보내야하는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여가활동이 주민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세부항목의 만족도 평균 조사결과에서도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항목인 문화·여가시설 이용, 다른 부문의 세부항목들에 비해 도시와 농촌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화·여가 시설 이용항목보다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목의 만족도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회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주민들은 교통불편과 도시에서의 소득기회 획득을 위해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농촌주민에 비해 도시주민의 이주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주민들은 주택거주의 불편함을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꼽았다. 또한 농촌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도시에서의 소득기회 창출과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을 그 이유로 꼽았다.

- 도시주민의 농촌 이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의 은퇴 후 전원생

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도·농간의 정주 환경 격차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농촌주민들이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 불편의 해소를 위한 인프라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5가지 지역구분을 통한 농촌주민 만족도 조사¹²

□ 조사개요

- 2015년도 조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이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국을 농촌과 도시로 구분하되 농촌지역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지자체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농촌지역을 인구, 토지이용, 경제활동(산업)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간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의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도시지역은 700명을 할당하고, 농촌지역은 2,000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표본할당을 진행하였다.
 - 조사가 완료된 최종 표본은 도시지역 742명, 농촌지역 2,304명이며, 4가지 농촌지역 유형을 인구비례 할당하여 동지역 25%, 읍·면지역 75%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지역 유형별 최종 표본 할당은 <표1>과 같다.

¹² 2015년도 조사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되 농촌지역을 인구, 토지이용, 경제활동(산업)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간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의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표 1. 도시유형별 최종 표본 수

구분	세부구분	모집단	할당 표본 수		
			총 계	동지역	읍·면지역
도시조사	도시지역	31,515,030	742	716	25
농촌조사	중간지역(도시성 우세)	1,633,653	342	98	244
	중간지역	3,946,913	717	211	506
	중간지역(농촌성 우세)	484,981	179	21	158
	농촌지역	4,363,656	1,066	223	842
	합계	10,429,203	3,046	1,269	1,775

표 2. 도시유형별 대상 지역

지역구분	해당지역
도시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전라북도(전주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경상북도(구미시, 경산시),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경기도(이천시), 강원도(태백시), 충청남도(서산시), 전라북도(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순천시), 경상북도(포항시), 경상남도(거제시)
중간지역	세종시, 경기도(동두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시),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충청북도(청원군, 진천군), 충청남도(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전라북도(김제시, 완주군), 전라남도(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경상북도(경주시), 경상남도(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제주도(제주시)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강원도(정선군, 화천군), 충청북도(증평군), 전라북도(무주군), 전라남도(곡성군), 경상북도(봉화군, 울진군), 경상남도(양산시, 하동군)
농촌지역	경기도(안성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릉군), 경상남도(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제주도(서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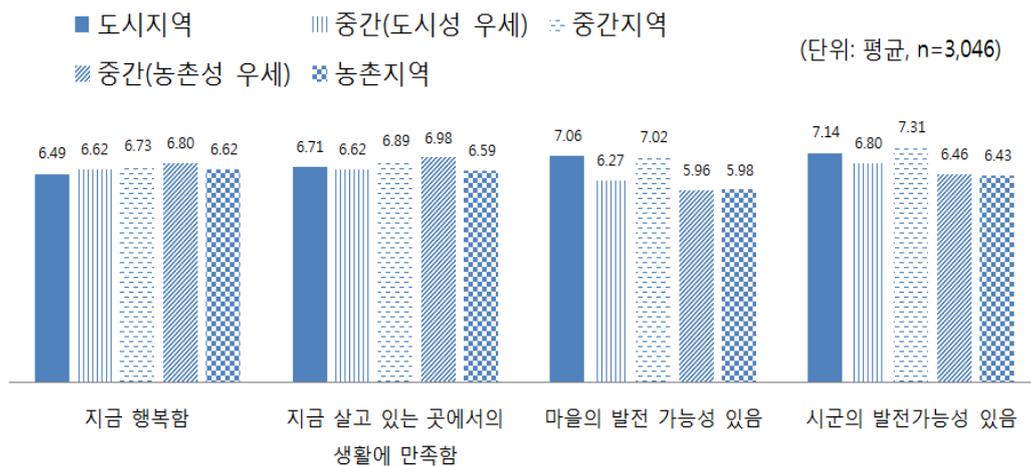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 지역성격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이 6.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중간지역이 6.73점,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과 농촌지역이 6.62점으로 나타났고, 도시지역이 6.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에서도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이 6.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중간지역이 6.89점, 도시지역이 6.71점으로 나타났다.

- 즉, 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읍·면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한 조사결과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을 5가지로 세분화한 결과,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 5가지 지역구분



- 5가지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는,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 도시 읍·면지역이 7.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중 읍·면지역이 6.82점으로 나타났다. 도시 동지역은 6.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에서도 도시 읍·면지역이 7.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중간지역 중 동지역과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중 읍·면지역이 모두 7.04점으로 나타났다.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 동지역이 6.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가지 지역구분과 5가지 지역구분에서는 농촌지역의 행복감 평균 점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10개 지역으로의 세부구분 결과,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읍·면지역의 행복감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조사결과

- 지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을 5가지로 구분하였을 때는,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서 도시지역은 정주생활기반을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간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 모두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1순위를 고르는 응답에서, 도시지역은 정주생활기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를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다.
 - 도시지역 외 나머지 4가지 지역 모두 보건·복지를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으나,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과 중간지역은 정주생활기반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으며,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과 농촌지역은 지역경제를 다음으로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다.

표 3. 삶의 질 향상 중요도 1순위 비율 - 지역 5가지 구분(단위 %)

구분	(사례수)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도시 지역	(742)	19.8	28.2	14.8	14.8	8.6	6.2	5.7
	순위	2	1	3	3	5	6	7
중간 (도시성우세)	(342)	33.0	21.3	19.6	9.4	6.4	5.0	3.8
	순위	1	2	3	4	5	6	7
중간 지역	(717)	26.2	20.5	19.5	11.2	9.6	5.3	4.5
	순위	1	2	3	4	5	6	7
중간 (농촌성우세)	(179)	42.5	15.6	21.2	6.7	7.8	2.2	1.7
	순위	1	3	2	5	4	6	7
농촌 지역	(1,066)	30.5	14.6	23.6	8.8	7.7	6.5	3.5
	순위	1	3	2	4	5	6	7

- 5가지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는,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서 도시 동지역의 응답자들은 정주생활기반을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도시 읍·면지역은 경제활동·일 자리를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다. 또한 도시성 우세 중간 동지역, 도시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 중간 읍·면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 농촌 동지역, 농촌읍·면지역은 보건·복지를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고, 중간 동지역과 농촌 동지역은 경제활동·일자리를, 농촌성 우세 중간 동지역은 정주생활기반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꼽았다.

표 4. 삶의 질 향상 중요도 1순위 비율 - 지역 세부구분(단위 %)

구분	(사례 수)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도시 동지역	(716)	20.1	28.6	14.1	14.9	8.5	6.1	5.9
	순위	2	1	4	3	5	6	7
도시 읍·면지역	(25)	12.0	12.0	36.0	12.0	12.0	8.0	0.0
	순위	2	2	1	2	2	6	7
중간 (도시성우세) 동	(98)	30.6	24.5	17.3	13.3	7.1	4.1	3.1
	순위	1	2	3	4	5	6	7
중간 (도시성우세) 읍	(244)	34.0	20.1	20.5	7.8	6.1	5.3	4.1
	순위	1	3	2	4	5	6	7
중간 동지역	(211)	21.3	22.3	22.7	13.3	10.0	3.3	4.7
	순위	3	2	1	4	5	7	6
중간 읍·면지역	(506)	28.3	19.8	18.2	10.3	9.5	6.1	4.3
	순위	1	2	3	4	5	6	7
중간 (농촌성우세) 동	(21)	14.3	33.3	23.8	9.5	14.3	0.0	0.0
	순위	3	1	2	5	3	6	6
중간 (농촌성우세) 읍	(158)	46.2	13.3	20.9	6.3	7.0	2.5	1.9
	순위	1	3	2	5	4	6	7
농촌 동지역	(223)	28.7	11.7	28.7	8.5	7.2	7.6	4.5
	순위	1	2	1	3	5	4	7
농촌 읍·면지역	(842)	31.0	15.4	22.3	8.9	7.7	6.2	3.2
	순위	1	3	2	4	5	6	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결과

○ 지역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안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도시지역의 만족도가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간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건·복지, 환경·경관 부문은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은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부문은 모두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구분과 낮은 지역구분의 차이가 가장 큰 정책부문은 문화·여가 부문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도시지역과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간의 12.12점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지역 5가지 구분(단위-평균)

구분	(사례 수)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도시지역	(742)	7.18	7.26	5.65	6.68	6.88	6.40	6.39
중간(도시성우세)	(342)	6.13	6.55	4.92	6.52	5.77	4.96	5.97
중간지역	(717)	6.40	6.61	5.30	6.61	6.06	5.49	6.12
중간(농촌성우세)	(179)	5.88	5.82	4.48	6.90	5.23	4.28	6.20
농촌지역	(1,066)	5.86	6.00	4.77	6.63	5.53	4.79	5.94

○ 5가지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도시 동지역, 도시성 우세 중간 동지역, 중간 동지역, 중간 읍·면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 동지역, 농촌 동지역은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고, 도시 읍·면지역, 도시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 농촌 읍·면지역은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즉, 주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활동·일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화·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5가지지역 세부구분(단위-평균)

구분	(사례 수)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도시 동지역	(716)	7.21	7.30	5.67	6.68	6.92	6.47	6.42
도시 읍·면지역	(25)	6.27	6.12	4.87	6.60	5.70	4.52	5.61
중간(도시성우세)동	(98)	6.50	7.11	5.39	6.67	6.39	5.90	6.32
중간(도시성우세)읍	244	5.97	6.32	4.74	6.46	5.52	4.58	5.83
중간 동지역	211	6.93	7.35	5.77	6.79	6.72	6.22	6.59
중간 읍·면지역	506	6.19	6.30	5.11	6.54	5.78	5.18	5.92
중간(농촌성우세)동	21	6.47	7.18	5.78	6.37	5.94	6.19	6.24
중간(농촌성우세)읍	158	5.80	5.64	4.30	6.97	5.14	4.03	6.20
농촌 동지역	223	6.28	6.71	5.15	6.64	6.19	5.63	6.23
농촌 읍·면지역	842	5.74	5.81	4.66	6.62	5.35	4.56	5.85

□ 7대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결과

○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 양육·보호 지원의 세부항목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복지지원은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이, 응급상황 의료서비스는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 양육·보호 지원의 세부항목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농촌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복지지원’은 도시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이, 응급상황 의료서비스는 농촌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부구분에서도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5가지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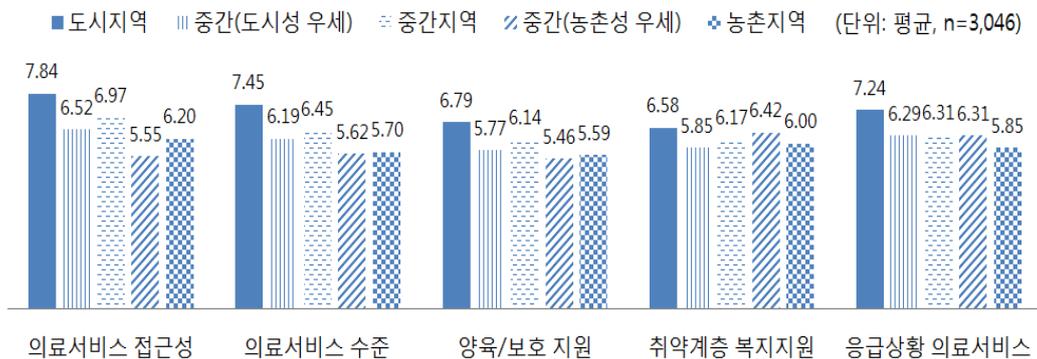


표 7. 보건·복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 5가지 지역 세부구분(단위-평균)

세부구분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응급상황 의료서비스
도시 동지역	7.87	7.49	6.82	6.59	7.29
도시 읍·면지역	7.04	6.08	5.84	6.42	5.88
중간 (도시성우세)동	7.31	6.57	6.16	5.95	6.53
중간 (도시성우세)읍	6.20	6.04	5.62	5.81	6.20
중간 동지역	7.65	7.10	6.52	6.42	6.94
중간 읍·면지역	6.68	6.17	5.98	6.07	6.05
중간 (농촌성우세)동	7.24	6.38	5.52	6.24	6.95
중간 (농촌성우세)읍	5.33	5.52	5.46	6.44	6.22
농촌 동지역	6.82	6.18	5.96	6.12	6.35
농촌 읍·면지역	6.03	5.57	5.49	5.97	5.72

○ 교육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을 5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교육의 세부항목 모두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특히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의 만족도 점수가 다른 세부항목의 만족도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 양질의 학교교육 항목은 도시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방과후 교육기회와 어른들의 평생학습기회 항목은 농촌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지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을 5가지로 구분한 경우에는 주택상태,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이용 항목의 경우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중교통 이용 항목은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5가지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했을 경우에는, 주택상태,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이용 항목에서 농촌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은 농촌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5가지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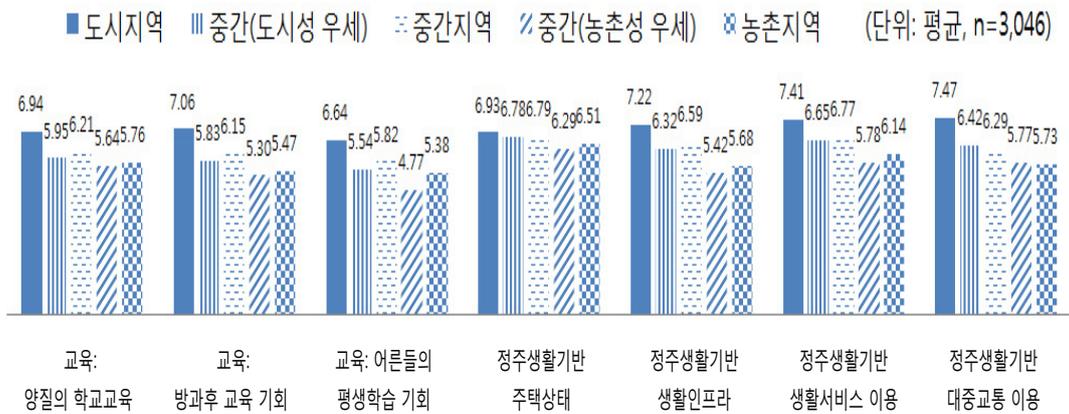


표 8.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 5가지 지역 세부구분

세부구분	교육			정주생활기반			
	양질의 학교 교육	방과후 교육 기회	어른들의 평생 학습 기회	주택 상태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용	대중 교통 이용
도시 동지역	6.99	7.09	6.67	6.93	7.27	7.46	7.53
도시 읍·면지역	5.50	5.95	5.92	6.76	5.79	6.00	5.96
중간(도시 성우세)동	6.54	6.53	6.11	6.93	7.12	7.29	7.10
중간(도시 성우세)읍	5.71	5.55	5.31	6.73	6.00	6.40	6.14
중간 동지역	6.82	6.82	6.52	7.27	7.38	7.47	7.26
중간 읍·면지역	5.95	5.87	5.52	6.58	6.26	6.48	5.88
중간(농촌 성우세)동	6.00	6.19	5.62	6.45	7.33	7.43	7.38
중간(농촌 성우세)읍	5.59	5.18	4.65	6.27	5.17	5.56	5.55
농촌 동지역	6.31	6.19	6.06	6.67	6.44	7.04	6.69
농촌 읍·면지역	5.61	5.28	5.19	6.47	5.48	5.89	5.47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지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을 5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소득기회 획득, 다양한 소득기회 제공 항목에서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지역 경제활동 여건 개선항목은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농촌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지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을 5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모든 지역구분에서 문화·여가시설 이용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 5가지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는, 모든 항목에서 농촌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경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지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을 5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항목과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은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적은 환경오염 항목은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5가지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항목에서는 도시 읍·면지역이,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은 농촌 읍·면지역이, 적은 환경 오염 항목은 도시성 우세 중간 읍·면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5가지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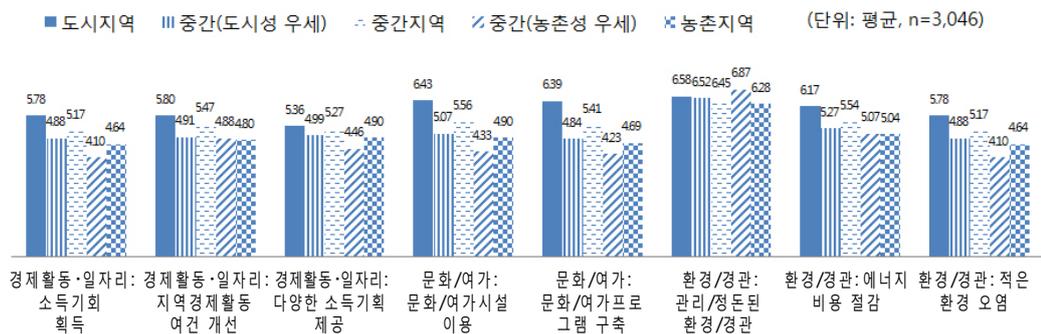


표 9.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 5가지 지역 세부구분

세부구분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소득기회획득	지역경제활동여건개선	다양한소득기회제공	문화/여가시설이용	문화/여가프로그램구축	관리·정돈된환경/경관	에너지비용절감	적은환경오염
도시동지역	5.80	5.83	5.39	6.49	6.46	6.61	6.21	6.45
도시읍·면지역	5.24	4.96	4.52	4.71	4.48	5.68	4.96	6.00
중간(도시성우세)동	5.58	5.09	5.53	5.99	5.82	6.88	5.64	6.45
중간(도시성우세)읍	4.60	4.84	4.78	4.70	4.45	6.37	5.12	5.99
중간동지역	5.71	5.95	5.65	6.21	6.22	6.90	6.12	6.76
중간읍·면지역	4.95	5.28	5.10	5.29	5.08	6.26	5.29	6.23
중간(농촌성우세)동	5.76	6.24	5.33	6.19	6.19	6.43	6.14	6.14
중간(농촌성우세)읍	3.87	4.69	4.34	4.08	3.97	6.92	4.93	6.74
농촌동지역	5.00	5.10	5.34	5.72	5.54	6.56	5.57	6.57
농촌읍·면지역	4.54	4.71	4.78	4.68	4.45	6.20	4.89	6.48

○ 안전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5가지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 범죄안전과 교통사고 안전 항목은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이, 자연재해 안전 항목은 도시지역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가지 지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세부구분 하였을 때, 범죄안전과 교통사고 안전 항목은 농촌성 우세 중간 동지역이, 자연재해 안전 항목은 도시 읍·면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5가지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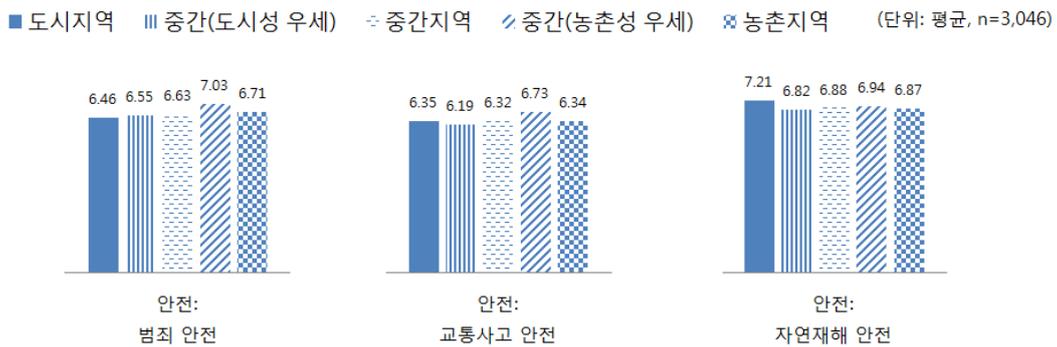


표 10. 안전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 5가지 지역 세부구분

세부구분	안전		
	범죄안전	교통사고 안전	자연재해 안전
도시 동지역	6.46	6.36	7.21
도시 읍·면지역	6.36	6.04	7.29
중간(도시성 우세)동	6.58	6.34	7.10
중간(도시성 우세)읍	6.54	6.13	6.71
중간 동지역	6.69	6.46	7.21
중간 읍·면지역	6.60	6.26	6.75
중간(농촌성 우세)동	6.52	6.10	6.48
중간(농촌성 우세)읍	7.10	6.82	7.01
농촌 동지역	6.55	6.39	6.99
농촌 읍·면지역	6.74	6.33	6.83

표 11. 5가지 지역구분을 통한 8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차이

부문	도시 지역	도시성 우세 중간 지역	중간 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 지역	농촌 지역	세부항목
보건· 복지	7.84	6.52	6.97	5.55	6.20	의료서비스 접근성
	7.45	6.19	6.45	5.62	5.70	의료서비스 수준
	6.79	5.77	6.14	5.46	5.59	양육/보호 지원
	6.58	5.85	6.17	6.42	6.00	취약계층 복지지원
	7.24	6.29	6.31	6.31	5.85	응급상황 의료서비스
교육	6.94	5.95	6.21	5.64	5.76	양질의 학교교육
	7.06	5.83	6.15	5.30	5.47	방과 후 교육기회
	6.64	5.54	5.82	4.77	5.38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주거 및 생활 환경	6.93	6.78	6.79	6.29	6.51	주택상태
	7.22	6.32	6.59	5.42	5.68	생활 인프라
	7.41	6.65	6.77	5.78	6.14	생활서비스 이용
	7.47	6.42	6.29	5.77	5.73	대중교통 이용
경제 활동· 일자 리	5.78	4.88	5.17	4.10	4.64	소득기회 획득
	5.80	4.91	5.47	4.88	4.80	지역경제활동 여건 개선
	5.36	4.99	5.27	4.46	4.90	다양한 소득기회 제공
문화· 여가	6.43	5.07	5.56	4.33	4.90	문화/여가 시설 이용
	6.39	4.84	5.41	4.23	4.89	문화/여가프로그램 구축
환경· 경관	6.58	6.52	6.45	6.87	6.28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6.17	5.27	5.54	5.07	5.04	에너지비용 절감
	5.78	4.88	5.17	4.10	4.64	적은 환경오염
안전	6.45	6.55	6.63	7.03	6.71	범죄안전
	6.35	6.19	6.32	6.73	6.34	교통사고 안전
	7.21	6.32	6.88	6.94	6.87	자연재해 안전
전체 평균	6.69	5.85	6.11	5.52	5.65	

- 7대 부문의 모든 세부항목들의 5가지 지역구분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이 전체 만족도 평균점수 6.69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4개의 지역구분 중에서는 중간지역이 6.11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별 세부항목들에서, 농촌에 해당하는 4가지 지역구분 중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 부문의 세부항목들에서는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오히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 또는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 부문의 취약계층 복지지원, 응급상황 의료서비스항목과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대중교통 이용항목,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지역경제활동 여건 개선, 환경·경관 부문의 에너지비용 절감 항목은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결 및 시사점: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도시와 농촌구분에서 더 나아가, 지역을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간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삶의 질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등의 조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 농촌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농촌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장소기반적 접근을 통한 농촌지역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개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추진과 그에 적합한 정

책 추진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개별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지역별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농촌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부록 2

지역 구분 및 시·군명

구 분	지역 수	시·군명
합계	160	
일반시	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청주시, 전주시, 목포시
도·농 복합시	55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원시, 제주시, 서귀포시
군	83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부록 3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 처리 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 연구 책임: 심재현 부연구위원(☎ 061-820-0000) / 유은영 연구원(☎ 061-820-0000)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조직입니다.

LOC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포항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AGE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만 19세 미만 면접중단 만()세 (※ 만 19세 이상만 응답)

Q01.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읍·면/동 ()리(행정리)

Q02. 현재의 마을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Q03.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종합	나는 지금 행복하다	①	-----	⑩	()점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	⑩	()점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	⑩	()점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	⑩	()점

Q04.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보건· 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①	-----	⑩	()점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①	-----	⑩	()점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①	-----	⑩	()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①	-----	⑩	()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	⑩	()점
교육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	⑩	()점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	⑩	()점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①	-----	⑩	()점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주거 및 생활 환경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① ----- ⑩	()점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① ----- ⑩	()점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① ----- ⑩	()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① ----- ⑩	()점
지역 경제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① ----- ⑩	()점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① ----- ⑩	()점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① ----- ⑩	()점
문화·여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 ⑩	()점
	문화·체육장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① ----- ⑩	()점
환경·경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① ----- ⑩	()점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① ----- ⑩	()점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① ----- ⑩	()점
지역 사회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① ----- ⑩	()점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① ----- ⑩	()점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 ⑩	()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 ⑩	()점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 ⑩	()점
정보·통신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 ⑩	()점

Q07-2.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어려워하면 [보기] 제시

[보기]		
주거 및 생활 인프라	①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②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③ 교통이 불편하다	
	④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⑤ 난방비가 많이 든다	
경제활동	⑥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구직, 창업 등) /농촌에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지역사회	⑦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교육	⑧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⑨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환경·경관	⑩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건·의료	⑪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복지	⑫(영유아·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문화·여가	⑬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안전	⑭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⑮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그 외	⑯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개인 희망이 아닌)	
	⑰ 마을에(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서	
☞ ⑱ 기타:(내용:)		

Q08. 선생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 Q08-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Q09번 문항으로

Q08-1.(Q07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귀농·귀촌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개월

Q09. 선생님은 지역사회 활동(행사·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 안 한다 ②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④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0. 선생님택의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연립/빌라) ③ 아파트
 ④ 비거주용 건물 ⑤ 기타()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1. 선생님택의 주택 거주(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월세 ③ 무상
 ④ 기타() ⑤(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개인 및 가구 관련 질문입니다.

DQ01. 선생님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

- ① 기혼 ② 미혼

DQ02. 선생님의 최근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좋다 ② 양호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지 않다 ⑤ 상당히 좋지 않다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3. 선생님택의 최근의 가정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상당히 불만족한다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4.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원 이상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5. 현재 선생님은 어떤 일(직업)을 하십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을 답해주십시오.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퇴직 ⑧ 무직 ⑨ 기타()

DQ06. 선생님 댁(본인 포함)에 농축산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텃밭 등 취미농 제외)

- ① 있다 ② 없다

DQ07. 선생님 댁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독신가구 ☞ DQ08 문항으로
② 1세대 가구(부부) ☞ DQ08 문항으로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④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⑤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⑥ 기타() ☞ DQ07-1번 문항으로

DQ07-1.(13번 문항에서 ③~⑥에 답한 경우만) 귀 댁에는 성인이 아닌(1~19세) 자녀나 손자녀가 있습니까?()

- ① 없다 ☞ DQ08번 문항으로 ② 있다 ☞ DQ07-2번 문항으로

DQ07-2.(13-1번 문항에서 ②에 답한 경우만) 자녀의 연령대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복수응답 가능)

- ① 영유아 ② 초등학생 ③ 중·고등학생 ④ 기타()

DQ08. 선생님 댁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곤란해 하면 보기 제시

-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1,999만원 ③ 2,000만원~2,999만원
④ 3,000만원~3,999만원 ⑤ 4,000만원 이상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부록 4

2014년 및 2015년 만족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비교

부문	2014년	2015년	비고
보건 복지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신규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되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 생활 기반	주택들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부문	2014년	2015년	비고
경제 활동 · 일자 리	적절한 소득기회(일거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전반적인 경제 활동 여건이 좋아졌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 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농업에 기반한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 경관	환경과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답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규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 송미령·채종현. 20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민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성주인·채종현·최용욱. 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심재현·노승철·권인혜·류경선. 20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lab.go.kr/>)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http://www.nier.go.kr/>)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stat.mltm.go.kr>)
-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http://stat.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tat.tour.go.kr/ptour1/index.do>)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계분석시스템(<http://www.istans.or.kr/>)
- 안전행정부, 재정고(<http://lofin.mospa.go.kr>)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http://stat2.smba.go.kr/>)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포털(<http://www.redis.go.kr/>)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http://mdss.kostat.go.kr/>)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홈페이지(<http://survey.keis.or.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환경부, 환경종합정보서비스(<http://etips.me.go.kr/>)

환경부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